

자료집

(사)광주환경운동연합 2022 정기총회

- 일시 : 2022년 1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광주환경연합 3층 대강당(대광새마을금고)+ 온라인(ZOOM)



| <http://gj.ekfem.or.kr>

| 페이스북 gjkfem 트위터 @gjkfem

| 블로그 blog.naver.com/gjkfem

| 유튜브 youtube.com/c/광주환경운동연합

[자료집 목차]

■ 정기총회 식순	1
■ 2021년 활동일지	2
■ 감사보고(안)	10
■ 2021년 사업보고(안)	16
■ 2021년 재정결산(안)	63
■ 조직구성(안)	74
■ 2022년 사업계획(안)	77
■ 2022년 예산(안)	101

[부록]

■ 성명서·논평 등	108
■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165
■ 회원 생활수칙	174

【 정기총회 식순 】

■ 1부 Ⅱ 정기총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 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 제1호 의안 _ 감사보고 안
- : 제2호 의안 _ 2021년 사업 및 결산 안
- : 제3호 의안 _ 임원선임 안
- : 제4호 의안 _ 2022년 사업 및 예산 안
- : 제5호 의안 _ 기타 안건
- 폐회

■ 2부 Ⅱ 시상식

- 녹색회원상 시상
- 공로패 수여

2021년 활/동/일/지

<1월>

- 1월 4일 승촌보, 죽산보 보해체 1인시위
- 1월 10일 ‘한빛 5호기 중대과실 시공사와 계약 유지하고, 추가 계약한 한수원을 규탄 한다!’ 성명서 발표
- 1월 11일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 철회요구 기자회견
- 1월 18일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1월 19일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성명서발표
-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 온라인회원대화, 에너지조례개정 회의,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 행동 선포 기자회견
- 1월 22일 신규교육 프로그램 개발회의
- 1월 26일 2021 회원정기총회, 용용씨 정기총회
- 1월 28일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철갑 신임 공동의장, 이경희 사무처장 선출
- 1월 31일 모래톱총회

<2월>

- 2월 5일 공동의장단 회의,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회의
- 2월 7일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 2월 8일 도시계획조례 유예부칙 삭제 피켓팅
- 2월 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워크숍
회원위원회 회의(2021년 사업계획 협의), [회원모임] 용용C 회의
- 2월 15일 전방·일신방직 공공성확보 시민대책위 회의
- 2월 16일 광주 쓰레기 처리방안 내부간담회
- 2월 18일 순환도로 태양광 발전 간담회(광주시, 시의회, 시민사회)
- 2월 19일 내지천 살리기 민관협약(광주환경연합, 동구청, 수자원공사), 서구 회원모임 준비 모임
- 2월 22일~ 25일 기아차와 함께 하는 어린이 체험환경교육(우리는 환경에 ON한다)
- 2월 23일 미디어위원회 회의(유튜브 방송 논의)
- 2월 24일 [회원모임] 시사모 시읽기 정기 모임(온라인)
- 2월 25일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 2월 2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총회
- 2월 27일 [회원모임] ‘물한방울 흠한줌’ 온라인 총회, 환경연합 전국 대의원 총회
- 2월 28일 [회원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답사- 광주천 시원지 샘플 답사, 함평 대동골프장 계획 관련 현장 답사

〈3월〉

- 3월 4일 한빛1,3,4호기 폐쇄 광주비상회의 운영위원회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개정 간담회 참석
- 3월 9일 회원위원회 회원확대 캠페인 추진회의
- 3월 11일 전국 국처장단 회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발표
- 3월 12일 [회원모임] 서구 회원모임- '함께 사는 길' 읽기
- 3월 16일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행동해서 바꾸자)' 도전자 모집
- 3월 17일 광주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보고회 참여
- 3월 19일 [회원모임] 시사모 시읽기 온라인 모임
-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영산강 행사(담양댐, 죽산보, 하굿둑), 행
해바 환경챌린지 100일 도전, [보도자료]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
래는 없다!
- 3월 23일 생활환경위원회 회의
- 3월 25일 유튜브방송 월간'식혜' 파일럿 방송- 후쿠시마, 수돗물, 집행위원회
- 3월 27일 [회원모임] 서구 회원모임- 중앙공원 소풍
- 3월 19일 [회원모임] 시사모 시읽기 정기 모임(온라인)
- 3월 25일~ 27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 해양 퍼포먼스, 가덕도 생태 및 바다 조사
- 3월 29일 [회원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광주천 답사, 나주SRF 및 쓰레기 문제 관련 시
민인식 조사시작, 빚고을 하천네트워크 회의
- 3월 30일 전국 광역처장단 회의

〈4월〉

- 4월 1일 ~ 4월 30일 지구의날 광주행사 #용기내서 용기내 챌린지
'51회 지구의 날 광주기념행사' 프로그램 에너지투어 진행
- 4월 1일 ~ 5월 3일 회원확대 캠페인
- 4월 2일 빚고을대중교통네트워크포럼
- 4월 6일 부설(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임시이사회,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4월 10일 시민발전소&에너지협동조합 양성과정
- 4월 13일 환경교육 강사단 용용씨 정기모임(교육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민발전소3호기 부지' 관련 교육청실무담당자 간담회
- 4월 14일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기획위원회 회의, 인권도시포럼 기획회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
- 4월 15일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응 관련 주민기자회견 지원
'나주 SRF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 성명서 발표,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위원회 회의, 환경연합 전국행동 - 가덕도 공항 반대,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 참석

- 4월 17일 황룡강 정화활동(지구의 날 기념)

- 4월 20일 국민연금 석탄투자 규탄 전국공동기자회견
광주전남 기후위기 대응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광산구 자원봉사 기후활동가 교육

- 4월 21일 탈핵활동 1인시위

- 4월 21일 서구회원모임 창립, 시와문학을사랑하는사람들 정기 모임(시낭송)
환경공단 “사회적 가치실현 업무협약”,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위원 간담회

- 4월 22일 유튜브 ‘월간 식혜’ 4월 정기방송
영산강 보해체 이행 계획 수립 관련 수공 면담
51주년 지구의 날 ‘30일간의 기후행동’ 기념식

- 4월 23일 내지천 살리기 민관협력 회의, 전국탈핵활동가 대회

- 4월 24일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기획위원회 회의
회원소풍(무등산 평두메습지, 황룡강 월봉서원)

- 4월 25일 광주천치킴이 모래톱 정기모임(광주천 2구간 답사)

- 4월 27일 광산구 자원봉사 기후활동가 교육
한빛핵발전소 폐쇄 광주비상회의

- 4월 28일 도시계획 시민포럼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관계기관 간담회

- 4월 29일 전국환경운동연합 사업장 폐기물 내부 간담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친환경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 4월 30일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정기회의(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시대학 운영안 등
논의), 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
모임(시낭송)

〈5월〉

- 5월 1일 전국 환경연합 대표자회의

- 5월 3일 ‘밝은삶 맑은터’ 편집위원회 회의(227호 편집 안)
영산강 보해체 이행 계획 수립 관련 수공사장 면담

- 5월 6일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개발 대응 주민 면담
내지천 살리기 민관협력사업 - 주민협의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 5월 11일 자원순환강사단 용용씨 회원모임

- 5월 12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반대 시민모임 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자회견, 캠페인, 피해자간담회

- 5월 13일 ~ 27일 매주 목요일 에너지시민학교:에너지시민활동가양성과정
- 5월 14일 서구회원모임 (다락, 함께 사는 길 5월호 읽기)
- 5월 17일 빛고을하천네트워크 회의, 광주기후행동 집행위원회회의
- 5월 20일 도시계획 시민포럼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문제점과 대안’
- 5월 21일 내지천 살리기 민관협약(광주환경연합, 동구청, 수공, 주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간담회,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 사업회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긴급진단 감담회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여야’ 성명서 발표
- 5월 23일 서구회원모임(5.18국립묘역 참배),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5월 정기답사
- 5월 25일 생활환경위원회 2차 회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간담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대식
- 5월 26일 호남권 탈핵활동가 워크숍, 함평 골프장 반대 주민 집회 지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및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 5월 27일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 오리엔테이션, 유튜브 ‘월간 식혜’ 5월 정기방송
- 5월 28일 시와문학을사랑하는사람들 5월 모임(시낭송)

〈6월〉

- 6월 1일 용용씨 정기모임
- 6월 2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철폐촉구, 태평양을 지키기위한 국제행동의 날
- 6월 3일 공동의장+감사+집행위원 연석회의
- 6월 9일 시민발전소 3호기 건설을 위한 시설 담당자 회의 / 그린카 진흥원
- 6월 9일~30일 매주 수요일 12시 탈핵행동 1인시위
- 6월 10일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워크숍
- 6월 10일, 28일 에너지 시민학교 - 시민활동가 양성과정 2기
- 6월 11일 민관협치 환경분과 의제 회의, 서구회원모임 〈서로〉 함께 사는 길 읽기 모임 / 마
을도서관 다락
- 6월 12일 기후위기 영상 상영제
- 6월 14일 법인전환특별위원회 회의, 밝은삶 맑은터 227호(5~6월호) 발행 및 발송
- 6월 15일 회원위원회 회의. 북부순환 대책 간담회,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발대식
- 6월 16일 2021 동아시아기후포럼 기획회의, 전일방 부지 보전 및 활용안 토론회
- 6월 16일~18일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교육
- 6월 17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석면해체 부실 대응활동 - 현장조사, 긴급기자회견, 후쿠
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소영길 대표 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 규탄 성명서 발표,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
(1,2강)
- 6월 17일, 23일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경제성과 재무성 학습
- 6월 18일 미래도시위원회 회의, 시와문학을사랑하는사람들 정기모임 (시낭송)

- 6월 20일 물한방울흙한줌 - 나주 천연염색
- 6월 22일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3,4강),
- 6월 23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석면해체 부실 대응활동 성명서 발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자치분권 설명회 참여
- 6월 24일 광주전남 석면 피해실태 발표 기자회견, 유튜브 '월간식혜' 6월 정기방송
- 6월 25일 광주 활동가 공제회 만남의 날 - 공제지원단 참여
- 6월 26일 회원 만남의 날 - 영화 '그레타 툰베리' 공동 관람
- 6월 27일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 내지천 답사, 서구회원모임 <서로> 정기모임 - 병천사 답사
- 6월 28일 시민발전소 3호기 건설을 위한 시설 담당자 회의 / 푸른꿈창작학교
- 6월 29일 우리강 자연성 조사 워크숍, 관광재단 "예쓰투어" 계약
- 6월 30일~7월 2일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 체험프로그램 진행, 사무처 워크숍 / 강원도 영월 일대

<7월>

- 7월 2일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회의
- 7월 5일 에너지시민학교 - 시민활동가양성과정 2기
- 7월 7일~16일 광주 패스트푸드점, 카페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 7월 7일~28일 매주 수요일 12시 탈핵행동 1인시위
- 7월 8일 전국 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회의
- 7월 9일 낙동강 현안(자연성 회복, 취수원 이전 문제) 워크숍
- 7월 12일 전일방 시민대책위원회 회의
- 7월 13일 내지천지킴이- 내지천 정화활동, 내지천 모니터링, 기후에너지위원회 회의, '북동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사업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성명서 발표
- 7월 15일 물하천 운동 워크숍
- 7월 19일 '광주 동구 쓰레기줄이기 100일 생활실험' 사업 제안 발표(광주시민환경연구소)
- 7월 20일 생활환경위원회 3차 회의
- 7월 19일 '쓰레기줄이기 100일 생활실험' 사업 협약(연구소)
- 7월 23일 쓰레기줄이기 100일 생활실험' 추진 관련 회의(연구소)
- 7월 25일 모래톱 정기 모임, 광주천 모니터링
- 7월 27일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동구, 시민의 힘으로 탄소중립 2045,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실험' 추진. 산수 2동 주민 대상으로 생활 실험단 참가자 모집 중
- 7월 28일 내지천살리기 추진 회의(환경연합, 광주 동구, K-Water, 주민) 영섬유역위원회 회의 참석(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광주 남구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 연구사업 협약(광주시민환경연구소)
- 7월 29일 유튜브 -월간식혜 7월 정기 방송

7월 30일 내지천 정화활동

<8월>

- 8월 3일 광산구 청소행정 TF회의 참여
- 8월 5일 집행위원회 정례 회의(서면)
- 8월 10일 자연지기 발송, 4대 유역위원회의
- 8월 11일 '광주 동구 쓰레기줄이기 100일 생활실험' 발대식(광주시민환경연구소)
- 8월 12일 서구회원모임 서로- 함께 사는 길 8월호 읽기
- 8월 15일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 답사
- 8월 17일 내지천지킴이 모임, 정화활동
- 8월 18일 도시계획시민포럼 '옛 광주교도소 부지, 개발 문제'
- 8월 20일 예쓰투어 중간 점검 회의(기획팀, 주관기관 등)
- 8월 22일 어린이자연나들이
- 8월 24일 환경교육센터(준) 운영위원회 회의
내지천 지킴이 모임, 정화활동, 하천 조사
- 8월 26일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내지천살리기 실무회의
- 8월 27일 회원 홍보 및 후원 영상 제작 회의
- 8월 29일 어린이자연나들이 / 서구회원모임 서로 정기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 모임
- 8월 31일 내지천지킴이 교육, 정화활동, 어류조사

<9월>

- 9월 1일 후쿠시마 1인시위, 환경연합 에너지위원회회의
-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캠페인, 친환경마트실천 협약식
- 9월 7일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성명 발표
- 9월 9일 공동의장+집행위원 연석회의
- 9월 10일 서구회원모임 서로- 함께 사는길 9월호 읽기
- 9월 14일 용용씨 정기모임, 자연지기 발송, 내지천지킴이 모임, 정화활동
- 9월 15일 내지천 저서생물조사
- 9월 19일 물한방울 흠한줌- [나주 3편]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 9월 21일 환경교육 포럼
- 9월 24일 지한초등학교 생태교육, 자원순환해설사 심화교육, 내지천 정화활동
- 9월 25일 어린이자연나들이
- 9월 26일 서구회원모임 서로 정기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 9월 27일 지한초등학교 생태교육(~29)
- 9월 28일 자연지기 발송, 내지천 식물조사(~30)
- 9월 29일 북동구역 전면 재개발 경관위 회의 관련 성명발표, 전면 재개발 반대 주민 기자회견

견 지원, (연)동구 재활용선별장 방문-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30)

9월 30일 '시를 사랑하는 모임' 9월 정기모임

〈10월〉

10월 5일 도시건축시민대학 실무점검회의

10월 6일 후쿠시마 1인 시위, 회원위원회 회의

10월 7일 내지천 살리기 실무회의, 집행위회의,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하라' 성명서 발표

10월 8일 대선공약팀 회의, 서구회원모임 서로- 함께 사는 길 10월호 읽기

10월 9일 석곡천 정화활동

10월 12일 내지천 지킴이 대전 비선마을 답사, 자연지기 발송

10월 13일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일 활동 마감, 도시건축시민대학 "광주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후쿠시마 1인시위

10월 14일~15일 2021년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 내지천 정화활동

10월 17일 [보도자료]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10월 19일 광주도시계획시민포럼 "광주, 도시의 미래를 논하다", 전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의, 물한방울흙한줌_화순 적벽, 이서마을

10월 20일 도시건축시민대학 "도시기반구조로서의 경관과 녹지", 후쿠시마 1인시위

10월 21일 기후에너지위원회 회의

10월 22일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회의, 광산구 자원순환 해설사 시연평가회 2팀 [보도자료] 광주 동구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험 - 쓰레기 감량 효과 있다!

10월 23일 회원 가을소풍, 어린이자연나들이

10월 24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10월 25일 광산구 자원순환 해설사 시연평가회 1팀,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남구 2030 신재생에너지 50% 목표에 따른 지역 특화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10월 26일 에너지전환마을 워크숍, 지역 특화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 간담회, 자연지기 발송, 생활환경위원회 회의, '시를 사랑하는 모임' 정기모임

10월 27일 탄소중립위원회, 도시건축시민대학, 황룡강 장록습지 정화활동, 후쿠시마 1인시위

10월 28일 월간식혜 9월호 라이브 방송, 내지천 정화활동

10월 29일 시민협 운영위 회의, 전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의, 내지천 정화활동

〈11월〉

11월 3일 2021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날, 내지천 정화활동

11월 9일 내지천 어류조사, 정화활동, 용용씨 정기모임

11월 11일 내지천 살리기 실무회의

11월 10일 후쿠시마 1인시위

- 11월 12일 서구회원모임 서로- 함께 사는 길 11월호 읽기
- 11월 15일 학부모 대상 에너지교육, 1회용품 줄이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
- 11월 16일 아름다운 재단 IT 지원 컨설팅, 협동조합협의회, 삼척 석탄발전 반대 기자회견
- 11월 17일 내지천 정화활동, 도시건축시민대학 “아파트공화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후쿠시마 1인시위
- 11월 18일 내지천 정화활동, 영산강 취양수장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11월 18일~20일 제20회 한국 강의 날 연천대회
- 11월 19일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한마당, [보도자료]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 10월에도 감량성과 이어가
- 11월 20일 어린이자연나들이
- 11월 23일 광주도시계획시민포럼 “용도지역제, 이대로 좋은가?”,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시를 사랑하는 모임’ 정기모임
- 11월 24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회의, 고준우해폐기물 특별법 국회 상임위 상정 철회 촉구 성명서,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발굴 정책워크숍, 후쿠시마 1인시위
- 11월 25일 월간 식혜 11월호 라이브 방송
- 11월 26일 광주 물순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 간담회, 탄소인지 예산 및 예산 탄소영향평가 정책토론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의회 발대식
- 11월 27일 광산구 자원순환 교육홍보사업 성과보고회
- 11월 28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염주주공 재건축 가로수 제거 항의 성명 발표
- 11월 30일 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 성과보고대회, 광산구 자원순환 교육홍보사업 평가회의,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실행위원회 회의

<12월>

- 12월 1일~6일 내지천 환경정비
- 12월 1일 서구회원모임 서로- 가로수 추모행사
- 12월 2일 CMS, 회원관리프로그램 이관, 시민총회의제 ‘견고싶은 도시 만들기’ 실행팀 회의
- 12월 6일 생태도시·탄소중립도시 광주를 위한 대선공약 5가지 발표
- 12월 7일 물순환 간담회
- 12월 8일 도시계획조례 개정팀 회의
- 12월 9일 전국환경연합 전국국처장단회의
- 12월 10일 소식지 밝은삶 맑은터·함께 사는길 발송, 내지천 안내판 제막식 및 성과보고대회, 서구회원모임 서로 모임
- 12월 11일 학동참사시민대책위
- 12월 14일 용용씨 정기모임, 동구 쓰레기줄이기100일실험 최종성과보고 및 토론회
- 12월 15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성명서 발표
- 12월 16일 내지천 살리기 사업 성과공유회
- 12월 17일 2022년 환경교육 계획 수립논의,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회의

- 12월 20일 광주환경연합, 탄소중립도시·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 제안
- 12월 21일 생활환경위원회 5차 회의
- 12월 22일 도시계획시민포럼
- 12월 24일 ‘시를 사랑하는 모임’ 12월 정기모임, [보도자료] 2021년 광주, 전남 환경 10대 뉴스,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심의를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 12월 26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 12월 28일 가로수 관리정책 개선요구 시민서명 전달
- 12월 29일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 구상을 철회하라!’ 연대성명 발표

감사보고(안)

2021년 광주환경운동연합 감사보고서

- 감사일자 : 2022년 1월 10일(월) 14:00~16:00
 - 감사장소 : 사무실
 - 감사내용 : 2021년 회계연도(1/1~12/31)의 사업 및 재정
-
- 수감자(참석자) : 박태규공동의장, 박미경공동의장, 이경희 사무처장, 최지현정책실장, 김종필 사업국장, 정은정 팀장, 김현아활동가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감사 노희정



감사 김길수



2021년 (사)광주환경운동연합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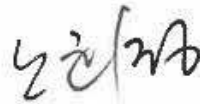
- 감사일자 : 2022년 1월 10일(월) 14:00~16:00
- 감사장소 : 사무실
- 감사내용 : 2021년 회계연도(6/1~12/31)의 사업 및 재정

- 수감자(참석자) : 박태규 이사장, 박미경 이사, 이경희 사무처장, 최지현정책실장, 김종필 사업국장, 정은정 팀장, 김현아활동가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감사 노희정



감사 김길수



감사보고 안

[사업부문]

(사)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광주환경연합) 정관 제 13조 4항,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5조 제2호에 따라 2021년 사업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환경연합은 1. 회원 및 조직활성화, 부설기관 및 위원회 활성화 2.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강화를 목표로 기관 조직 활성화와 중점 및 연속사업의 지속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시스템 구축, 생태도시 만들기, 물하천, 자원순환 등의 활동 전반에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활성화를 통해 활동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안 정책을 발굴하고, 마을과 단체, 기관등과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동성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회원모임을 조직하고 회원활동을 강화하였다는 점, 생활환경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도시위원회 등 위원회 강화를 통해 활동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 조직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회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되었습니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회원수를 늘려 회원들과 만나는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 미디어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들이 눈에 띕니다. 2021년 미디어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확장을 꾀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지속성과 다양성을 갖추어 환경문제에 관심 갖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광주천의 상류인 내지천 살리기 활동과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도시건축시민

대학 등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의 현장을 바탕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가는 활동의 성과가 눈에 띕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탈핵운동도 전국 및 지역 연대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탈핵과 탈석탄운동을 통한 에너지전환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확대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교육센터 활성화와 청소년의 참여활동 부족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의 참여를 이끄는 활동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성장과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어느 해보다 시민들과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대선 정책 제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선거 국면에서 공약 평가 등 시민단체 역할이 더 활발하고 지역의 공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편 2021년 부설기관인 광주시민환경연구소가 조직을 정비하고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남구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 연구사업, 동구 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 추진과 제2차 무등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연구 착수 등이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의 지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설 연구소, 전문기관의 활성화를 당부합니다.

2021년 5월, 환경연합은 공익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사회적 본분을 강화하고 건강한 환경연합이 되기 위해 회원과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현장활동을 바탕으로한 정책 대안의 제시에 더욱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부분]

본 감사인은 첨부된 광주환경연합 및 사단법인 광주환경연합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부분을 감사하

였습니다.

월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계산서, 관련 지출결의서를 검토하였으며, 왜곡 표시 된 부분은 없었으며 통장내역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부는 회비, 후원금, 사업비,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수입구성에 따라 예산이나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인 듯 보입니다.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뿐 만 아니라 언론사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의 성과를 알리는 것과 함께 회원과 후원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출부는 경상비, 사업비,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비로 구분된 급여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담당자의 급여 등을 사업비에 구분 경리하여 처리하여야 해당 사업의 정확한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광주환경연합에서 사단법인 광주환경연합으로의 재산 이관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서 광주환경연합 명의의 계좌, 현금 자산, 부동산(전세계약)등이 잘 정리되었고, 2022년 1월 초, 사단법인 광주환경연합으로 재산이 이관됩니다.

202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일원화되어 회계가 운영됩니다. 공익법인에 따른 세무/회계와 보고 등 추가되는 업무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말 발발한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극복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실을 다지는 조직강화의 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결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담당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원님 뿐만 아니라 회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끝>

2021년 사업보고(안)

회원-조직사업

□ 사업목적

- 시민에서 회원으로, 회원 확대를 통해 환경운동 저변을 확대
- 실천하는 시민과 회원으로 광주환경연합의 회원활동성을 높임.

□ 사업개요

- 일상적 회원확대와 집중회원배가 기간을 설정하여 회원 확대
- 지역별, 주제별 회원 모임을 신규조직, 회원들의 네트워크 확장
-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대면, 비대면 소통기능 강화

□ 사업내용

1. 회원 현황

1) 회원현황(2021.12.31. 회비납부 기준)

회원구분	회원수	회비납부방법	회원수
개인회원	1,100	자동이체	1,222
가족회원	40	지로	4
어린이, 청소년	66	통장-직접납부	14
평생회원	50	기타	45
계	1,285	계	1,285

2) 회비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원)	12,480,000	10,681,000	13,546,000	13,216,000	12,602,000	16,970,00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원)	14,041,000	13,957,000	12,966,000	18,981,000	14,364,000	14,216,000

2. 회원 확대 사업

1) 회원 확대 캠페인 -나의 기후행동! 회원가입으로 FLEX

- 기간 : 4월1일~4월 30일
- 회원 가입 프로그램 : 내가족, 친구, 이웃을 회원으로, 카톡·문자를 통한 회원가입, 회원참여 프로그램, 카카오 100일 프로젝트 등
- 회원 확대 캠페인 결과 : 83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

2) 장기미납회원 관리 및 회비 증액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6개월 이상 회비 미납회원 대상으로 회비납부 요청

3. 회원 참여프로그램

1) 회원소풍

- 상반기 : 4월 24일(토) - 황룡강 월봉서원, 무등산 평두메
- 하반기 : 10월 23일(토)- 무등산 평두메, 청풍쉼터

2) 회원 참여 프로그램 - 그레타 튠베리 영화 관람

- 일시 : 6월 26일(토) 오후 3시/ 광주극장
- 영화제목 : 그레타 튠베리
- 프로그램 : 기후토크쇼 진행
- 참여자 : 32명 참여(성인, 어린이 포함)

3) 지구를 위해 행동 해서 바꾸자(행해바)- 비대면 시민실천프로그램

- 기간 : 3월 22일~6월 29일(100일)
- 참여자 : 63명
- 내용 : 카카오 100일 챌린지활동으로 연계하여 제로웨이스트, 그린에너지, 비건 등 환경실천활동을 매일 인증

4) 회원탐방 프로그램 - 우리지금 만나

- 매월 1~2명 회원 탐방활동
- 회원들이 활동 제안을 듣고, 활동을 소개
- 회원과 소통활동

4.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 환경투어- 예쓰(예술+쓰레기줍기)투어 운영

1) 예쓰투어 시즌 1- “도시공원과 문화마을”

- 기간 : 7월 21일~10월 31일
- 내용 : 환경과 예술을 접목한 비대면 도심투어로 광주환경연합과 광주관광재단의 협업으로 진행
- 프로그램 : 광주천 해설, 쓰레기줍기, 공예체험, 양림동과 사직공원, 광주공원 탐방
- 결과 : 총 250명 참여, SNS 예쓰투어 인증 등 도심의 생태문화공간 발굴, 도심관광의 가능성 발굴

2) 예쓰투어 시즌 2- “중외공원과 비엔날레”

- 기간 : 9월 1일~10월 31일
- 내용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과 중외공원에서 예술여행과 플로깅 진행
- 프로그램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생태숲길, 중외공원 플로깅 등
- 결과 : 총 250명 참여, 중외공원과 디자인비엔날레 홍보, 환경투어와 디자인비엔날레 접목을 통해 도심공원을 이용한 예술관광의 가능성 발굴

5 홍보활동

1) 소식지 ‘밝은 삶 맑은터’ 발행 및 발송

- 기간 : 1월~12월(총 6회, 격월간 간행)
- 회원 1,000여명에게 발송
- 내용 : 환경연합 활동소식과 회원소식을 지면을 통해 알림

2) 월간지 ‘함께 사는 길’ 구입 및 발송

- 기간 : 1월~12월(총 12회, 매월 발송)
- 회원 420명에게 발송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 ‘함께 사는 길’ 에서 발행하는 전문 환경잡지를 매월 회원에게 발송

3)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 기간 : 1월~12월(총 24회), 둘째, 넷째주 화요일 정기 발송
- 내용 : 광주환경연합 활동소식과 계획, 환경정보 등을 이메일로 발송

4)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홈페이지 : <http://gj.ekfem.or.kr>

-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jkfem
- :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gjkfem>
- : 유튜브 : www.youtube.com/c/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날] - 함께! 꿈! 행동

- 일시 : 11월 3일(수) 오후 4시~4시 37분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광주환경운동연합)
- 제목 : 함께!꿈!행동
- 내용 :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꿈꾸고 함께 행동하자는 각계의 응원 영상과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계획 발표 등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 기간 : 6월 30일(수)~7월 2일(금)
- 내용 : 환경운동의 현장 탐방, 동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와 그 후 10년의 변화된 상황을 고찰 ,

사업평가

- 일상적 회원확대와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해 회원 증가
- 유튜브 채널 운영을 활성화, 영상 콘텐츠를 통해 회원 및 시민소통
- 서구회원모임 결성, 청년 모임 준비,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회원 참여 확대

활동사진

<p>그레타툰베리 영화관람(6/26)</p>	<p>회원소풍(10/23)</p>

[회원 모임]

1. 물한방울 흙한줌

□ 활동목적

- 생태문화 답사로 가족 단위 회원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환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함양으로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

□ 활동개요 : 가족단위 생태답사 진행

□ 활동내용

- 나주와 화순의 생태, 문화, 인물을 중심으로 나주 3편, 화순 3편 진행

일자	장소	주제
4월 18일	영산강 유채꽃길	[나주 삼편 (1)] 영산강 유채꽃길과 영산포 근대문화
5월 23일	불회사 등	[화순삼편(1)] 화순 지역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전동진 시인과 함께(전남대 연구교수)
5월 20일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등	[나주 삼편 (2)] 나주천연염색, 쪽물에 빠지다.
7월 18일	화순 이서 상상수목원	[화순삼편(2)] 세 무지개가 뜨는 폭포- 무등산 시무지기를 찾아서
9월 9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나주 삼편 (3)] 숲은 생명이다
10월 17일	화순 적벽 등	[화순삼편 (3)] 화순 적벽과 누룩꽃빵 빛는 이서마을

※ 10월 17일, 회원 개방 행사로 진행하여 8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함.

□ 활동사진



나주 삼편(3) 숲은 생명이다.(9/9)



화순삼편 (3)] 화순 적벽과 누룩꽃빵 빛는 이서마을 (10/17)

2.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활동목적

- 광주천·지류하천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통한 하천 살리기
-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활동으로 하천 보전의식 확산

□ 활동개요

- 매월 네 번째 일요일을 정기모임으로 하고 수시로 광주천·지류하천 답사 및 모니터링 진행

□ 활동내용

- 모래톱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매월 정기모임 프로그램 진행
- 광주천과 지류하천 답사 및 모니터링 진행.
- 정기모임 : 매월 네 번째 일요일

날짜	장소	내 용
1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모래톱 2021년 정기총회
2월 28일	제2수원지~샘골	광주천 시원지 샘플답사
3월 28일	교동교~원지교	광주천 1구간 답사 및 기록
4월 25일	원지교~양유교	광주천 2구간 답사 및 기록
5월 23일	양유교~유촌교	광주천 3구간 답사 및 기록
6월 27일	내남동 내지천 일대	내지천 답사 및 기록
7월 25일	유촌교~영산강	광주천 4구간 답사 및 기록
8월 22일	광주공원~양림동	예쓰투어
9월 26일	원지교~양유교	광주천 2구간 답사 및 기록
10월 24일	양유교~유촌교	광주천 3구간 답사 및 기록
11월 28일	유촌교~영산강	광주천 4구간 답사 및 기록
12월 2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마당

- 하천교육 :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천생태체험교실 운영
- 조사활동 : 광주천 현황 조사, 오염원조사,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관련 현장 (내지천) 답사 및 자문, 철새조사 등

□ 활동사진



정기답사 5/31



내지천 답사 6/27

3. 시를 사랑하는 모임

- 회원 10여명 참여
- 매월 1회 정례모임, 시 읽기 및 영화관람 등 추진. 시읽기 모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ZOOM 화상 미팅으로 진행
- 친목 도모, 온라인 소통
- 월별 활동 내용

일 자	내 용(낭송 시 등)	모임 장소
1월	2021년 계획 수립	
2월 23일	겨울 밤 0시 5분(황동규) 외	ZOOM 화상
3월 19일	길(김소월), 봉오리(이경옥) 외	"
4월 30일	슬픔은 자량이 될 수 있다(박 준) 외	"
5월 28일	낙타의 생(류지화) 외	"
6월 18일	나귀처럼(이가림) 외	"
8월 26일	선암사 낙옆들은 해우소를 간다(정호승) 외	"
9월 30일	그 국경의 기차역엘 가고 싶다.	"
10월 26일	들판이 적막하다(정현중) 외	"
11월 23일	영화 '로그인' 관람	광주 독립영화관

- 평 가 : 온라인을 통해 시 읽기 모임 지속은 긍정적.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홍보 모색 필요.



시낭송 온라인 모임



'로그북' 영화 관람

[환경교육 강사단 용역C]

□ 활동목적

- 1회용품 문제, 올바른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인식확대를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교육, 홍보부스 운영, 캠페인·조사 활동 진행

□ 활동개요

- 월 1회 정기모임 개최(둘째 화요일)
- 신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활동 등

□ 활동내용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역량강화활동 진행
- 초·중고, 성인대상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 143회 진행(광산구교육지원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구의제사업, 학교요청 등)
- 각종 행사 자원순환 홍보·교육부스 참여, 총 18명

구분	일시	내용
1	1/26(화) 16:30~17:30	- 2021년 운영방안 논의, 집행부, 교육팀, 사업팀 역할분담
2	2/9(화) 14:00~16:00	- 공모사업 준비, 자원순환 조사활동 등
3	3/10(화) 13:30~15:30	- 서구 책 동아리 사업, 자따마따 수업 준비
4	4/13(화) 13:00~15:00	-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논의
5	5/11(화) 13:30~15:30	- 상반기 교육일정 공유 및 역할분담
6	6/1(화) 13:30~15:30	- 하반기 교육일정 공유 및 역할분담
7	7/13(화) 13:30~15:30	- 하반기 교육일정 공유 및 역할분담
8	9/14(화) 13:30~15:30	-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논의, 신입강사 참여
9	10/13(화) 13:30~15:30	-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논의, 조사활동
10	11/9(화) 13:30~15:30	-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논의, 조사활동
11	12/14(화) 13:00~15:00	- 2021 활동 평가, 2022 계획 논의

□ 활동사진



4. 서구회원 모임 [서로]_ 2021년 신규 회원 모임

□ 활동목적

-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모임
- 일상의 공유와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활동개요

- 함께 사는 길 읽기, 마을 답사 등

□ 활동내용

- 1월 20일 : 21년 회원 대화마당에서 서구지역 회원 모임 제안
- 1월 29일, 2월 19일 : 서구회원 모임 준비 회의
- 3월 2일 : 참여회원 모집
- 3월 12일(금) : 함께 사는 길 함께 읽기
- 3월 27일 : 중앙공원 봄 소풍
- 4월 9일(금) : 함께 사는 길 함께 읽기
- ※ 매월 둘째주 금요일 10:00, 마을도서관 다락에서 '함께 사는 길' 읽기 모임 진행
- 4월 22일 : 서구회원모임 서로 창립 총회
- 6월 27일(일) : 이은미(금호동 마을해설사 마을이야기꾼)회원에게 듣는 우리마을 문화유산(병천사, 백석산)
- 7월 24일(토) : 함께 영화- '월-e', '인생은 아름다워'
- 9월 26일(일) : 금당산 산행
- 10월 24일(일) : 영산강 자전거 투어
- 11월 27일(토) : 염주주공 가로수 제거 대책회의
- 12월 1일(수) : 가로수 추모 활동

- 12월 3일(금)~12월 20일 : 가로수 대책 요구 서명운동(온라인, 오프라인)
- 12월 16일(목) [온오프특강] 가로수 목숨지키기 방법 - 최진우박사(환경생태연구활동가,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

□ 활동사진



5. 청년회원모임 준비모임

□ 활동목적

- 90년대생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즘 떠오르는 환경문제나 사회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다양한 생각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

□ 활동개요

- 청년모임을 구성하기 위해 회원이 된 계기, 참여하고 싶은 유형의 회원모임, 가장 관심 있는 환경 이슈 등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 첫 만남의 날 진행.

□ 활동내용

- 6월 28일~7월 28일 : 57명 회원 대상 청년모임 수요조사 진행. 14명 응답.
- 8월 28일 (토) : “예쓰투어” 참여, 광주천 플로깅, 가족공예 체험, 양림동 거리 탐방

□ 활동사진



[위원회]

1. 집행위원회

- 월 1회 정례회의(매월 첫 번째 목요일) 개최
 -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대면+온라인(ZOOM 화상)으로 진행
- 각 위원은 회원, 재정, 인사, 기획, 홍보 등 위원회 참여

2. 광주환경운동연합 OB모임(자문회의)

- 일시: 11월 18일(목) 12:00
- 장소: 임실댁가마솥추어탕
- 내용: 사단법인 전환 보고, 에너지전환, 생태도시 관련 현안 자문

3. 회원위원회

- 1차 회의 : 2월 9일 19:00/ 대면+비대면 / 2021년 회원프로그램 논의
- 2차 회의 : 3월 9일(화) 19:00 / 광주환경연합 회의실 / 회원확대캠페인 등 논의
- 3차 회의 : 6월 15일(화) 19:00/ 환경연합 회의실/ 회원 규정 등 논의
- 4차회의 : 10월 6일(수) 12:30/ 비대면/ 하반기 회원 프로그램 등 논의

4. 미디어위원회

□ 활동목적

-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알리고,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활동
- 광주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방송 제작과 온라인 행사 진행

□ 활동내용

1) 유튜브 방송 - 월간식혜

- 총 9회 방송 :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8시
- 구성 : 광주 환경연합 활동단신, 회원모임 알아보기, 이달의 이슈, 문화코너(이달의 책과 영화 추천), 광주환경연합 활동계획 등

2) 영상 제작

- 후원의 날 영상 제작 및 편집
 - : 후원의 날 기념영상, 축하메시지, 응원메시지, 광고영상
- 정책토론회 영상촬영 및 편집, 유튜브 생중계

- 3.11 후쿠시마 핵사고 기자회견, 물의 날 기념 모래톱활동 등

3) 행사 온라인 진행

-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5.27)
-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날(11.3)
- 정책토론회 : 도시계획조례개정(9.15), 광주탄소중립 선언 1주년평가(8.2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한·중·일 시민사회포럼(6.17)

□ 활동사진



월간식혜 4월 미디어위원회 참가자



월간식혜 방송중

5. 편집위원회

- 격월 1회 정례회의 개최
- 소식지 '밝은 삶 맑은 터' 구성 논의, 편집과정 검수 등 자문

6. 생활환경위원회

□ 목표 : 자원순환, 유해화학물질 대응 등 생활 속 환경운동 의제발굴, 사업지원 및 자문

□ 활동

1) 1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3.23(화) 저녁6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생활환경위원회 구성, 2021활동계획 보고 및 방향 논의

2) 2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5.25(화) 저녁6시30분/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환경피해구제법 관련 정보공개청구, 미세먼지 교육프로그램 시연, 자문

3) 3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8.25(수) 저녁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상반기 생활환경사업 평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현황, 질의내용 공유

4) 4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10.26(화) 저녁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2022활동계획 보고 및 방향 논의,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5) 5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12.20(화) 저녁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지방선거 대비 생활환경 정책제안(안) 검토 등

7. 기후에너지위원회

□ 목표 : 국내외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제도 및 시민사회활동의 동향을 살피고, 핵심 의제를 도출.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운동 활성화 지원

□ 활동

1) 1차 위원회 회의

- 일시 : 7.13(화) 정오.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기후에너지위원회 구성, 향후활동방향, 광주 탄소중립 선언1주년 평가 토론회 논의

2) 2차 위원회 회의

- 일시 : 10.21(목) 정오.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탄소중립선언1주년 평가토론회 평가. 2차 정책토론회 논의(탄소인지예산)

3) 정책토론회

- 1차 토론회 : 8.26 / 탄소중립선언1주년평가토론회
- 2차 토론회 : 11.26 / 탄소인지예산 정책토론회

8.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일자 : 격월 정례회의 진행

-내용 :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 도시계획현안 진단, 2040시민참여도시기본계획수립 지원활동 등 진행

※ 생태도시 사업 보고 참고

물·하천 살리기 운동

□ 사업목적

- 지역 물 순환을 위한 의제 발굴
- 도심 하천 오염원 현황 파악 및 개선책 마련
- 하천의 지속가능성,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도시 물순환 평가 및 개선 모색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조사· 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 영산강 자연성회복(보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촉진)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대응

□ 사업내용

1. 도심 하천 자연도 · 오염원 조사

- 조사기간 : 4월 ~ 11월
- 대장하천: 광주천, 내지천, 증심사천, 소태천, 석곡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림천, 영산강
- 내용 :
 - 하천개황, 하천 수질, 생태, 사회환경(거버넌스 구성여건 등)
 - 하천 조사활동을 통해 하천네트워크 활성화, 하천제반 정책 등 개선 촉구 자료 활용
 - 지속 조사로 시기적 하천 현황 파악 및 누적 자료 구축

2. 하천 정화활동

- 기간 : 4월 ~ 11월
- 장소 : 영산강, 광주천, 석곡천, 황룡강
- 내용 : 하천 조사 후속, 비점오염원 저감 캠페인 및 시민참여 정화활동 추진
 - 4/17: 황룡강 장록습지 정화활동(시민단체 회원 100여명)
 - 7/25 영산강 극락교 일대 둔치 정화활동 (시민 40여명)
 - 10/9 석곡천 정화활동(시민 학생 등 30여명)
 - 10/27 황룡강 장록 습지 정화활동(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20여명)

※내지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7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주민참여로 진행

3. 우리동네 불투수층 조사

- 취지 : 비점오염원, 하천 유량 감소, 지하수 고갈, 열섬의 원인이 되는 도시 불투수층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
- 기간 : 10월 ~ 11월
- 장소 : 각 구별 근린공원, 아파트, 학교 대상 84구역 조사
- 내용 : 주요 부지, 주차장, 도로 등 불투수, 투수 현황 조사 평가. 향후 불투수층 개선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 자료활용

4. 광주 물순환 비점오염원 저감 시민체감형 정책 간담회

- 일시: 11월 26일(금)16:30
- 장소: 광주환경연합 3층 강당
- 내용: 고준일 박사 주제발표- 광주 물순환 현황과 개선 과제, 물순환 조사 결과 공유 및 조사자 토론

5.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정과 이후 보전활동(연대)

- 취지: 민관 협력, 연대, 주민 참여를 통한 장록습지 등 습지 보전, 생태 건강성 증진
- 내용: 장록습지 정화활동, 습지조례 제정, 평두메 습지 등 답사(조사) 등

6.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운동

- 내용: 각화정수장 폐쇄에 따른 제4수원지 취수 중단. 수도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유지 필요성 상실로,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 광주 북구청이 해제 절차 추진. 비상 상수원 필요, 유역 자립 등이 필요한 상황에 상수원 포기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해제 반대 입장 표명 등 지역 물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해제 반대운동 추진
- 활동 : - 입장문발표-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 9월 7일
- 북구청 의견서 전달 : 9월 30일
- 바로소통 토론 및 광주시 권익위 안건 상정, 대안 마련(9월~11월)

7. 영산강 조사사업 및 보해제, 자연성 회복 정책 촉구- 물이 흐르는 영산강으로!

- 1)영산강 흐르게- 하굿둑 해수유통, 승촌보, 죽산보 해체 촉구 캠페인
- 일자 : 3월 22일(월)
- 장소: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영산강 상류~ 하류)
- 내용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생태, 환경 변화 조사에 이은 보 개방에 후속 하천 변화 모니터링, 정책제안 활동 전개(보개방 확대 및 보해체 추진 촉구)
- 3월 22일 물의날 기념, 보해체 촉구 캠페인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 동시 진행-연대)

2) 성명발표

-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1월 19일
- [물의 날 성명]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
승촌보, 죽산보 즉각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휘방말고 취양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11월 18일

3) 영산강 현황, 농산물, 수질 조사

- 기간: 수시, 12월
- 내용: 생태현황, 수질, 농업용수 수질, 농산물 조사 추진

4) 4대강재자연화시민회의, 영산강, 금강 보처리방안 이행 방안 마련 관련 간담회 등

8. 영산강 복원과 유역 보전을 위한 토론회-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5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 다목적 강당(나라키움 다목적 강당)
- 내용 : ‘우리강 자연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발표: 이을래 박사(수공연구원)-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 방향 주제
 - 토론: 광주, 화순, 담양, 나주 등 지역 영산강 섬진강 지역 물운동 단체, 주민 참여 토론
 - 결과: 계획과 구상으로 그치지 않고, 세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함. 지자체 등 물하천 관리 주체들, 거버너스로 공동 목표 실행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모아짐.

9. 영산강 섬진강 권 소유역거버넌스 구축 모델 발굴

※2021 내지천 도랑살리기 활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동구, K-Water, 내남동 주민(내지천 지킴이) 협업으로 도랑살리기 추진, 보전 및 관리 지속 활동 예정

10.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및 5개강유역협의회 연대 활동

- 강의 날 대회 등 연중 기념 행사 추진, 유역 현안 상시 협의 등

□ 평가

- 광주천 등 지속가능 하천관리 기여, 하천 자연성 회복 등(보해체 촉진)
- 영산강 섬진강 유역 보전, 영산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 실현
- 하천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와 지속가능한 하천에 대한 이해 확산
- 하천지킴이, 지역 연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유역 거버넌스 구축 기반
- 도시 물순환 제고를 위한 정책 제도 평가, 현황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 개선 활동 필요.
-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담론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구체적 보해체 실행, 하굿둑 해수유통 등으로 수 있도록 시민활동 지속 필요

□ 활동사진



3월 22일, 물의 날 행사

5월 25일, 영산강섬진강 자연성 회복 토론회

[민관협업 내지천 도랑살리기]

□ 사업목적

- 물길의 발원지인 작은 도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오염물질 유입, 복개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훼손된 도랑의 자연성 회복
-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지역의 환경자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거버넌스형 도랑살리기의 모델 형성

□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인근 주민들과 거버넌스 구축
- 지속가능한 도랑관리를 위한 주민 교육
- 생태환경 현황 파악과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생물조사

- 도랑 정화활동과 정화식물 식재를 통한 오염원 저감 및 수질개선
-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수질검사

□ 사업내용

1. 지킴이 양성 및 운영

1) 내지천 지킴이 양성교육

-참여인원 : 마을 주민 15명

-내용 : 내지천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마을 주민 15명을 내지천 지킴이로 위촉하기 위해 하천관련 교육을 4강 진행함

일자	주제	강사	장소
6/22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인사, 내지천 현황 및 도랑살리기 사업 소개 등	광주환경연합	지원2동사무소 강당
6/22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 활동의 의의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	"
6/24	주민참여형 하천보전활동이해, 비점오염원 이해와 개선 활동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정책실장	"
6/24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방법론. 실습	광주천지킴이 모래툽 홍기혁 회장	광주천
8/31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 이해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	내지천 일대

2) 타지역 도랑 살리기 사례 견학

-일자 : 10월 12일

-장소 : 대전 서구 산직동 비선마을 매노천 인공습지

-참여인원 : 마을 주민, 광주동구 공무원 등 20명(대전시 환경과, 물포럼코리아 대표 등)

-내용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을 줄여 수질개선에 성공한 하천의 현장 견학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의 이해를 돕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조성

3) 내지천 사업 및 도랑 살리기 캠페인

-기간 : 11월

-내용 : 마을 및 하천 인근에 내지천 도랑 살리기 현수막 게시, 친환경 비누 800여개를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 내지천 노트 제작 배포 등을 통해 내지천에 대한 이해, 도랑 살리기 사업 홍보,

실천 독려 등

2. 내지천 정화활동

-기간 : 7월~11월

-내용 : 지킴이 등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내지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정화활동 및 유해식물 제거활동을 매 월 2회 이상 씩 총 12회 진행함. 그 결과 하천과 하천변의 쓰레기 약 2,200리터, 환삼덩굴 약 3300리터 수거. 매회 10명씩 참여

3. 내지천 생태체험교실

-대상 : 지한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 71명

- 일자 : 9월 24일, 27일, 28일, 29일

-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하천강사단인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의 회원들이 강의를 진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학교 근처 하천을 직접 관찰하고 배움으로써 환경보전과 실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천과 수생생물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하천 관찰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함.

4. 내지천 생태조사

-기간 : 8월~11월 (어류 3회, 저서생물 2회, 식생 3회)

-추진현황

항목	내용
어류 조사	버들치, 갈겨니, 참붕어 등 총 4목 4과 7종
저서생물 조사	하루살이류, 강도래, 다슬기, 새뱅이, 거머리 등 총 5목 6과 14종
식생 조사	1차 - 목본류 10종, 초본류 52종으로 총 62종 2차 - 목본류 13종, 초본류 56종으로 총 69종 3차 - 목본류 21종, 초본류 57종으로 총 78종

- 내용 : 사업 전, 후 내지천의 생태환경 현황 파악을 위해서 생물 조사를 진행하여 내지천의 수 생태계 현황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유함.

5. 내지천 환경정비공사 및 정화용 식물식재

-기간 : 11월 26일 ~ 12월 13일

-내용 : 내지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랑과 도로변 환경 정비 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 및 하천과 하천주변에 꽃창포, 영산홍, 개나리 식재

6. 내지천 살리기 기념 노트 제작

-내용 : 내지천 생태지도, 내지마을 이야기, 내지천 생태조사 내용, 내지천 살리기 사업 활동 내용이 담긴 기념 노트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

7. 교육 참가자 및, 주민 만족도 조사

-기간 : 8월~ 11월

-내용 : 도랑살리기사업 평가와 후속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 참가자 평가 및 설문, 내지천 살리기 사업의 주민 만족도 조사 진행

-결과 : 교육 참가 만족도 상(재 참여 의사 높음 등), 도랑살리기 사업 확대 필요 등

□ 사업평가

- 하천 살리기 중요성을 마을 및 지역사회에 환기, 당사자인 주민참여가 활발함.
- 주민참여, 민관 협업을 통한 도랑 살리기 추진. 월 1회 이상 협업회의(거버넌스형 하천 살리기 실행, 거버넌스 기반 마련).
- 정화활동, 여울 소 조성, 횡 구조물 개선(중적 연속성 확보 등), 정화식물 식재 등으로 수질 개선 효과 기대(수질 검사 결과 사업 전 대비 내지천의 정화율이 평균 21.27%가 증가).
- 언론보도 등 홍보로 민관협업을 통한 성과, 모범 사례로 알려짐.
- 사업 효과 지속을 위해 도랑살리기 실행이 1년 단위 사업으로 멈추지 않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속 필요, 식재, 정비 등 평가 역시 1년으로 완성할 수 없음. 후속 개선 활동,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대상 하천 확대 필요.

□ 활동사진



민관합동 정화활동



생태체험교실

자원순환

□ 사업목적

- 쓰레기 매립장 조기포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 등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현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인식조사, 정책제안 진행.
- 광산구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자원순환 강사단의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운영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시민참여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 주민대상 자원순환 실천 활동,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인 활동 진행
- 주제별, 연령별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쓰레기 배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쓰레기 회수, 처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안

□ 사업내용

1. 광주쓰레기 처리, 나주 SRF 가동중단 관련 대응활동

1) 내부간담회_광주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장소 : 2월 16일(화) 14시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 내용 : 폐기물량 증가와 재활용선별장 시설·인력 부족 문제, 나주SRF 가동중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쓰레기문제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활동방안 논의

2) 광주 쓰레기 처리, 나주SRF 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 기간/대상 : 3월 29일(월) ~ 4월 5일(월) / 광주시민 733명
- 내용 : 쓰레기문제 현황공유 및 나주SRF 가동중단, 광주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광주시민 대상 온라인 인식조사 진행.

3) [성명서]나주SRF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 / 4월 15일(목)

- : 쓰레기문제 현황공유 및 나주SRF 가동중단, 광주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광주시민 대상 온라인 인식조사 결과, 폐기물정책 전환을 담은 성명서 배포

2. 자원순환 교육 및 강사단 역량강화활동

1) 용융C 신규강사 충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일시/장소 :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총 12회/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 내용 : 신규 강사단 대상 자원순환 프로그램 공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2) 초등, 중등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 일시/장소 : 3월~12월 중/ 초·중등학교 143회
- 내용 : 올바른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주제별 자원순환 교육 진행

3) 지역행사 자원순환 홍보부스 운영

- 기간/장소 : 연중/국제기후환경산업전, 광주여대, 광주교육청 시민참여행사 등
- 내용 :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교육홍보 부스 운영(용용c)

3. 광산구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교육 및 운영

1)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교육

- 일시/장소 : 5월 27일(목), 6월 16일(수)~18일(금) /장덕도서관, 광주환경공단
- 내용 : 자원순환 해설사 30인 대상 쓰레기 발생 현황과 시민참여방안,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 기초시설 견학 등 활동을 위한 양성 교육 진행

일시		주요내용	강사/비고
6/16 (수)	1강 13:30-15:10	○ 지구의 위기, 기후변화	김춘희(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기획실장)
	2강 15:20-17:00	○ 광산구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실	최성갑(광산구시설관리공단 대리)
6/17 (목)	3강, 4강 13:30-15:50	○ 올바른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유선옥, 신민정(환경교육강사단 용용C)
	5강 16:00-17:00	○ 자원순환 해설사 교육시연, 활동 공유	홍수정(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 1기)
6/18 (금)	현장워크숍 13:30-17:30	○ 광역위생매립장(항등사업소) ○ 제1하수처리장(광주사업소) ○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유덕사업소)	류호철(광주환경공단 대리) - 대형버스 대절 - 광주환경공단 등

2) 광산구 자원순환 해설사 심화교육

- 일시/장소 : 9월 24일(금) 13~18시/ 대광새마을금고 3층 강당
- 내용 : 기후위기대응, 인권 교육, 교수법 등 자원순환해설사 30인대상 심화교육 진행

	주요내용	강사/비고
1강 13:30-15:30	○ 좋은 강사, 인권 강사로 거듭나기	박종평(인권연구소 뚜벅이 소장)
2강 15:30-17:30	○ 기후위기, 가장 효과 높고 빠른 길은?	정인봉(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위원)

3) 캠페인, 교육 등 실천활동

- 일시/장소 : 6월 ~ 11월, 총 100회 이상/ 광산구 일대
- 내용 : 정기 팀모임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자원순환 홍보, 조사활동 진행.

- (1) 1팀 : 자원순환 교육연구 및 교구제작, 자원순환 홍보전단 캠페인, 정화활동, 취약지구조사
- (2) 2팀 : 자원순환 교육연구 및 교구제작, 분리배출 활성화 판넬제작 및 거리캠페인, 취약지구조사, 재사용 주머니 제작

4) 자원순환 해설사 강의 시연회

- 일시/장소 : 10월 22일, 25일 / 신가도서관, 광산구청소년수련관
- 내용 : 전문가 대상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시연회 진행

5) 광산구 자원순환 교육홍보사업 성과보고회

- 일시/장소 : 11월 27일(토) 10시~15시 하남경암공원
- 내용 : 광산구 자원순환 페스티벌 행사 및 2021 자원순환 교육홍보 활동(자원순환해설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성과대회 진행

4.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인 운영

1)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만남의 날

- 일시/장소 : 10월 22일(목) 15시, 18시/ 송정마을카페이공 제로웨이스트샵
- 내용 : 도전활동 후기 공유 및 자원순환 교육 진행. 50명 참여

2) 1회용품 안 쓰기 도전활동

- 기간/대상 : 7월~10월, 100일 / 광산구민 100인
- 내용 : 7월 6일 발대식 진행. 광산구민 100인 대상 1회용품 안쓰기 도전활동과 자원순환 교육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 실천사례를 수집·홍보함

3)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인의 100일 활동수기집 발간 / 10월 20일

- 100인의 1회용품 안쓰기 도전(~10/13) SNS 활동 및 활동수기 취합 및 보고서 작성, 1회용

품 없는 광주만들기 문화 확산

5. 지구의 날 광주행사 #용기내서 용기내 챌린지

- 기간/대상 : 4월 1일(목) ~ 30일(금) / 광주시민
- 내용 : 지구의 날 자원순환 의제 사업. SNS에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진과 해시태그를 올리는 용기내 챌린지 진행. 59건 참여

6. 광주 패스트푸드점, 카페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 기간/대상 : 7월 7일~16일 / 광주 106개 패스트푸드점, 카페 매장
- 내용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여부, 품목별 1회용품 재질, 사용이유 등 자발적협약이행, 플라스틱 조사 진행

7. 자원순환의 날 기념 자원순환 실천마트 협약식

- 일시/장소 : 9월 6일(월) 11시 / 빅마트 학동점 앞
- 내용 : 1회용,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 진행(*광주자원순환협의체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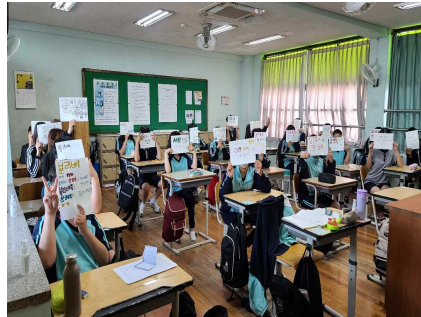
□ 사업평가

- 1회용품 없는 축제 운영,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등 1회용품 안쓰기 문화 확산
- 학교 대상 1회용품,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쓰레기배출, 일회용품 사용, 포함제품 회수실태 등 조사

□ 활동사진



광산구 자원순환 해설사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사업]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정책요구
- 미세먼지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재개발구역 석면 부실처리 대응 및 석면철거 안전관리 강화

□ 사업개요

- 대기질(초미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개선활동 전개
- 유해화학물질, 석면 등 지역현안 대응

□ 사업내용

1.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자문회의 참여

- 일시/장소 : 3월 17일(수) 14시 / 국제기후환경센터
- 내용 : 광주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최종보고 자문 참여 및 논의

2.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회의 참여

- 일시/장소 : 연중
- 내용 :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자문 참여 및 논의(*박미경 공동의장 참여)

3.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자회견, 캠페인, 피해자간담회

1) 기자회견, 캠페인

- 일시/장소 : 5월 12일(수) 13:30~14:30/ 신세계 이마트 정문 앞
- 내용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발표, 피해자 찾기와 진상규명 요구

2)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간담회

- 일시/장소 : 5월 12일(수) 15:00 / 대광새마을금고 3층
- 내용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공유, 광주전남 피해자 참여 간담회 기자간담회 진행.

3)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피해책임 촉구 1인시위

- 일시/장소 : 8월 30일(월) 10:00 / 홈플러스 계림점 앞

- 내용 : 광주전남 기습기살균제 참사 건강피해자 추산 61,161명, 피해신고 홍보,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4.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석면해체 부실 대응활동

1) 석면 현장조사, 긴급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17일(목) 11:00, 14:00/ 학동붕괴참사 현장
- 내용 :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석면관리 부실 현장 시료채취, 석면슬레이트 등 발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진행

2) [성명서] 학동4구역 붕괴사고 석면검출, 광주 재개발 재건축 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_ 6월 23일(수)

3) 광주전남 석면 피해실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24일(목) 10:00 / 광주시의회 1층
- 내용 : 학동4구역 현장 수집 7개 전 시료에서 백석면 12~14% 검출. 지자체, 노동부, 환경부, 수사당국의 후속조치, 책임자 처벌 및 안전관리 강화 요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석면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5. 생활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표 : 자원순환, 유해화학물질 대응 등 생활 속 환경운동 의제발굴, 사업지원 및 자문

□ 활동

1) 1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3.23(화) 저녁6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생활환경위원회 구성, 2021활동계획 보고 및 방향 논의

2) 2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5.25(화) 저녁6시30분/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환경피해구제법 관련 정보공개청구, 미세먼지 교육프로그램 시연, 자문

3) 3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8.25(수) 저녁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상반기 생활환경사업 평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현황, 질의내용 공유

4) 4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10.26(화) 저녁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2022활동계획 보고 및 방향 논의,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5) 5차 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12.20(화) 저녁7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지방선거 대비 생활환경 정책제안(안) 검토 등

□ 사업평가

- 미세먼지 행정 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책제안 및 네트워크 구축
- 재개발지역 점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찾기 지역홍보

□ 활동사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자회견



학동4구역 석면검출 조사, 기자회견

기후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운동]

□ 사업목적

- 시민참여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동 활성화
-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시민운동 전개
- 개인, 주민조직, 마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
-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제안 활동

□ 사업내용

1. 정책활동

- 1)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토대 마련 세미나
 - 일시 : 7.10(토). 오후 1시30분
 - 장소 : 김대중 컨벤션센터
 - 내용
 - 전국 시민참여 에너지 운동 동향 공유
 - 지역의 시민참여 에너지운동 진단 및 논의

- 2) 광주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1주년 평가토론회
 - 일자 : 2021년 8월 26일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의실+온라인
 - 참석 : 시민사회활동가, 시의원, 행정 등 20여명
 - 내용
 - . 주요내용
 - : 발제- 탄소중립 1년 평가 / 탄소중립 시민인식 조사 결과
 - 토론- 법과제도, 에너지, 교통, 마을에서 바라본 탄소중립1년평가

3) 탄소인지예산 및 탄소영향평가 정책토론회

- 일자 : 2021년 11월 26일(금)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의실
- 내용
 - 주요내용
 - 발제- 탄소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와 경기도 적용사례
 - 토론- 광주광역시 분야별 탄소예산평가(여성,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전환, 도시생태 등)

4) 에너지전환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활동

-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2021.4.20.)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2021.4.20.)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2021.11.1.)

2.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 국민연금 석탄투자 중단 촉구 전국행동 기자회견

- 일시 : 4.20(화) 오전11시
- 장소 : 국민연금 동광주지점
- 내용 : 전국 동시 국민연금 석탄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2) 지구의날 30일간의 기후행동

- 기간 : 4월1일~30일
- 방법 : 광주지역 재생에너지발전소 시설, 기후위기대응활동 거점 방문 후 인증샷
- 참여 : 광주시민 30명

3) 환경영상제 :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 일시 : 6.12(토). 오후 3시
- 장소 : 광주독립영화관
- 내용
 - 기후위기 관련 4편의 애니메이션, 3편의 단편 다큐 상영
 - 감독과의 대화

4) 포스코 삼척 신규 석탄발전 건설중단 기자회견

- 일시 : 11.23(화) 오전11시

- 장소 : 5.18 민주광장
 - 내용 :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소 1,2호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5) 광주글로벌모터스,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1.11(수) 오전11시
 - 장소 :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
 - 내용 : 광주글로벌모터스 옥상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에 시민참여 시행 촉구

3.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

- 일자 : 2021년 10월14일(목)~15일(금)
- 장소 : 여수컨벤션센터+온라인
- 참가 : 한·중·일 활동가 및 전문가 100여명
- 내용
 - 주제 : 1.5도씨 세계와 동아시아 탄소중립
 - 섹션 : 한·중·일 탄소중립 선언 1년평가와 3개 섹션
 - 성과 : 동아시아 지역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동향 공유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활동 강화

□ 사업평가

- 탄소중립선언 1주년 평가정책 토론회, 탄소인지예산제 정책토론회,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조례 제정, 기후환경교육 조례 제정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활동 전개
- 캠페인, 기자회견, 영화제 및 간담회를 통해 석탄화력의 문제, 기후위기 심각성,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등, 홍보활동 전개
-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등 국내외 연대활동 활발
- 정책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탈핵]

□ 사업목적

- 광주 탈핵활동 활성화 및 연대활동 강화
- 탈핵을 위해, 당면단체 및 회원, 시민들과의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 인식 확산

-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 감시 및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대응활동 전개

□ 사업내용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 공동행동’, ‘핵없는세상고아주전남행동’의 간사단체 역할 수행
- 탈핵활동가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
- 시민대상 홍보활동, 시민참여활동 전개
- 지역 핵발전소 현안의 적극적 대응

1. 후쿠시마10주년 한일공동 선포식

- 일시 : 1. 20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온라인
- 참석 : 한국, 중국, 일본 활동가 50여명

2. 탈핵 1인시위

- 일시 : 매주 수요일 정오.
- 장소 : 광주충장로우체국
- 참석 :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회원단체
- 내용 : 한빛1,3,4호기 폐쇄,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단 촉구 등

3.. 3.11 후쿠시마 10주기 행사

- 일자 : 2021월 3월 11일 / 장소 : 5.18 민주광장
- 참석 : 탈핵활동가 및 시민 50여명
- 내용
 - 3.11 후쿠시마 10주기 성명서 낭독 · 탈핵 퍼포먼스 · 탈핵 영화상영 : 월성

4.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배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4.14(수) 오전11시 / 장소 : 5.18민주광장
- 참석 : 광주시민사회활동가 및 광주시민 40여명
- 내용 : 규탄발언, 성명서 낭독 및 퍼포먼스

5.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간담회

- 일시 : 5.21(금)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의회 5층
- 참석 : 광주시민단체활동가 등 30여명
- 내용 : 향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물질 배출 계획 공유와 대응방안논의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한·중·일 시민사회포럼

- 일시 : 6.17(화) 오후2시
- 장소 : 광주 ngo센터
- 내용 : 한국, 중국, 일본의 활동가 및 전문가 40여명이 모여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활동 논의

7.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국제행동의 날

- 일시 : 6.2(월) 정오
- 장소 : 광주충장우체국, 푸른길, 아시아문화의전당, 하남대로
- 참여 : 광주시민활동가 및 시민 30여명
- 내용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홍보활동

□ 사업평가

- 한빛 핵발전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물질 방출계획,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등 현안문제를 1인 시위, 기자회견, 퍼포먼스, 영화상영, 전국연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시키고 여론화 함.
- 핵발전소 관련 안전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 전국적인 견고한 연대가 필요함

□ 활동사진



에너지전환 정책토론회



후쿠시마10주기 기자회견

[시민햇빛발전소]

□ 사업목적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설 및 2호기 운영
- 광주햇빛협동조합 활성화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 운영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 규모 : 100kw
- 장소 : 광주그린카진흥원 옥상(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
- 2021년 발전용량 : 134,175kwh

2) 광주시민햇빛발전소 2호

- 규모 : 20kw
- 장소 : 지혜학교 기숙사 옥상(광산구 내등길 16)
- 2021년 발전용량 : 25,386kwh

2.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 제목 :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발대식
- 일시 : 2021. 11. 21(금) 오후4시
- 장소 : 광주시의회
- 내용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외4개 협동조합, 3개의 준비모임으로 구성된 협의회 발대식

□ 사업평가

- 광주시민햇빛발전소1,2호기 안전운영과 수익 창출로 도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지역의 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발전소 확대를 지원하여, 3개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5개의 시민햇빛협동조합과 3개의 준비모임으로 구성된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협의회’를 조직

생태도시

□ 사업목적

-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시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감
- 도심의 생태공간의 생물다양성을 높임.
- 도심과 외곽의 난개발 대응활동을 통해 도시의 공공성을 높임

□ 사업개요

- 무등산 및 도심의 난개발 대응
- 시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생태마을 만들기
- 도시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개발의 대안을 제시

□ 사업내용

1. 무등산 난개발 대응

-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공동주택 저지운동에서 무등산 난개발 대응기구로 확장하여 등산난개발 저지시민연대 구성(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참여)
- 표고 100m이상의 부지에서 공동주택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2월 25일)의 성과를 만들어 냄.
- 무등산 신양파크호텔의 부지매입의 계기를 만들
- 성명서 발표 및 시의회 피켓팅 : 광주광역시 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2월 7일, 2월 8일)
- 성명서 발표 :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가 온당한가? (12월 29일, 시민협, 무등산난개발저지시민연대 성명 발표)

2. 도시계획조례 개정 운동

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마련

-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정팀 운영(전문가 2인, 활동가 2인)
- 개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시민 포럼을 통한 공론화(1차, 7월 21일)
- 시민단체협의회 공동활동으로 논의, 진행
-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 공론화(2차, 9월 15일)

2)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 일시 : 2021년 9월 15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광주 NGO 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245)와 Youtube
- 참여대상 : 현장 30여명/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중계
- 주최 : 조오섭국회의원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3.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조진상

- 위원 : 공동의장, 전문가, 집행위원, 회원 등 12인으로 구성

2) 정례회의

- 1차회의 : 2월 19일(금) 16:00
- 2차 회의 : 4월 30일(금) 16:00~17:30
- 3차 회의 : 7월 2일(금) 17:00
- 4차회의 : 8월 26일(목) 16:00
- 5차회의 : 10월 22일(금) 16:00
- 6차회의 : 12월 17일(목) 16:00

3) 주요 활동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마련
-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방안
- 북동, 전일방 부지 개발에 대한 자문
- 도시계획시민포럼 등 도시계획시민학습 프로그램 계획 등

4. 기타

1)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기획단 실행위원회 참여

- 실행위원회 회의 참여 : 1월 22일 / 2월 17일 /3월 17일 /5월 20일 /7월 13일 /
- 1단계 시민참여 : 온라인 시민 플랫폼 : <http://2040gjplan.kr>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 도출

1단계 시민참여 “당신이 원하는 광주는?”

- 기간 : 1월 15일 ~ 2월 26일
- 2,293개의 시민의견 수렴 및 분석을 통한 장기발전구상 제시

2단계 시민참여 “부문별 계획 ”

- 기간 : 10월 15일 ~ 12월 10일
- 토지이용, 주거·도지생, 교통, 경관, 환경, 녹지, 경제, 복지, 문화, 방재·안전

2) 염주주공 가로수 제거에 따른 가로수 근본 대책 요구활동

- 성명서 발표 ‘도심의 가로수, 언제까지 함부로 베어낼 건가?’ : 11월 28일
- 현장 추모 및 거리 서명운동전개 : 12월 1일, 2일
- 온라인서명운동 및 서명결과 전달 : 12월 27일, 가로수 관리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서명과 제안서를 광주광역시에 전달
- 특강 ‘가로수 목(木)숨 구하는 방법’ : 12월 16일(목) 오후 7시/ 마을도서관 다락 및 온라인(ZOOM)

3)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명 발표 : 10월 6일

□ 평가

-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공동주택 건립반대 시민운동을 통해 조례의 개정과 호텔 부지의 공공적 매입의 성과를 만들
-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모델(온라인/오프라인)을 설계하고 실행하였으나 다양한 세대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이슈를 확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 활동사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유예 피켓팅(2/8)



가로수 행동(12/2)

[현안 대응 및 연대]

1.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 운동

■ 배경: 지난해 전일방 회사가 전일방 부지 매각(부동산 업체가 매입) 및 부지 개발 사업제안서를 시에 접수, 현 공업용지를 상업용지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됨. 특히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주요 개발 내용으로 고밀 고층 개발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일제 강점기, 산업화시대를 관통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부지의 특성과 건축물에 대한 보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공성 의제가 지역사회에 대두됨. 광주시는 지난해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여부 판단 및 전제 조건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음. 이러한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광주환경연합도 참여하여 연대하고 있음.

■ 대응 활동(시민대책위)

- 1)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1월 20일
- 2) 시민대책위 정례 회의: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
- 3)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전·일방 부지, 보전과 활용 어떻게 해야 하나? : 6월 16일
 - <워크숍> 전일방 부지 현황과 대응 방안 : 7월 1일
- 4) 전일방 시민답사 “ 3월 20일, 8월 20일, 8월 28일
- 5) 시민권위 안건 제안 및 토의, 성명 및 논평 발표 등

■ 평가 : 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의 영향과 결과로, 광주시 TF안은 화력발전소, 보일러실(1·2), 고가수조 등 4곳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지정·보존하기로 함. 또 공장 안 건축물 27곳 가운데 직포공장, 원면창고 등 역사·장소·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10곳을 원형보존하거나 부분·활용 보존 검토 안이 마련되었음. 난개발을 저지하고, 도심의 근현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부지 건축물에 대한 가치 평가 및 보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향후 개발에 대한 대응 활동 지속 필요

2. 북동구역 재개발 대응

■ 배경 : 원도심의 중심사업 지역인 북동구역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 되면서, 주민 반대 등 갈등이 심화됨. 재개발 추진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면서, 북구청이 찬반 의견 조사, 구 도시계획위 자문, 광주시 경관위 회의 등이 진행됨. 중심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 고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전면개발 방식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함.

■ 대응 활동

1) 도시포럼- 북동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가 대안? (5월 3일)

2) 성명 발표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4/6)

-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7/25)

-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회의에 따른 성명(9/28)

3) 주민 기자회견 지원

- 북동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전환촉구 기자회견(4월 15일)

- 경관위 심의에 따른 기자회견 (9월 28일)

4) 북구청장 면담 : 7월 27일

■ 평가: 재개발사업이 도시활성화 및 도시 역사성, 환경성, 주민협의 기초가 아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어 도시난개발 야기 그리고 주민갈등, 도시 장소성 상실 등의 문제도 유발하고 있음. 도시 경관,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의제를 공론화 하고, 주민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음. 도시 개발 문제 대한 법제 개선 등 대응활동 의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3.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대응

■ 배경 및 내용 : (주)부영주택이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일부 부지를 한전공대 예정지로 기부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 절차를 추진, 이에 대한 대응을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함. 부영CC 부지는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부영측은 체육시설 해제와 함께 자연녹지를 일반주거3종 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요구하고 나주시가 행정 절차를 진행함.

■ 대응활동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초안보고서에 대한 입장, 의견 제출, 주민설명회 등)

- 나주시 면담

- 나주 부영CC 대책위에 참여 연대 활동 등

■ 평가: 체육시설 해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 3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과도한 도시계획 변경임, 특혜 소지가 있으며,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에도 적절치 않음. 시민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연대하여, 의제를 공론화하고, 난개발 저지 활동에 연대를 이어감.

4. 도시계획현안 진단- 도시계획시민포럼 운영

■ 배경 : 광주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지역내 도시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 실행. 매월 정기적으로 도시계획현안 진단 포럼을 통해 학습과 대안 모색의 시간을 갖음.

■ 내용

- 기간 : 4월~12월, 매월 1회, 저녁 7시
- 참여자 : 단체 활동가, 회원, 시민 그룹

	주제	발표자	장소
4/28(수)	광주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이영석(전.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대광새마을금고 3층
5/20(목)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문제점과 대안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경실련회의실
6.16(수)	전일방 이슈: 사익과 공익의 조화	윤현석(광주일보 기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7.21	광주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제안하다	이경희(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윤희철(광주지속협 사무총장)	푸른마을공동체센터
8.18	옛 광주교도소 부지 개발논란을 통해 본 5·18사적지와 도시발전의 방향	정성구(도시문화집단 CS대표) 이성각(KBS기자)	광주로 사무실
10.19	광주, 도시의 미래를 논하다 - 광주시 도시미래관을 건립하자 - 총괄건축가제도의 발전방안	박홍근건축사	경실련 회의실
11.22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윤현석(광주일보기자)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12.22	광주천 복원과 생태학적 도시재생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광주로사무실

■ 평가 :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연대 및 협력을 통해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전개

5. 도시건축시민대학

■ 배경 : 도시계획의 시민참여를 확장하기 위해 학습의 장을 마련, 건축사회, 시민협등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을 통해 지역내 도시계획 시민 전문가 양성

■ 내용

- 기간 : 10월 13일(수) ~ 11월 24일(수), 매주 수요일 7시 ~ 9시 30분
 - 장소 :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 (광주 동구 금남로 245)
 - 대상 : 도시·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 NGO활동가, 공무원 등
 - 인원 : 35명 이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인원 제한)
 - 주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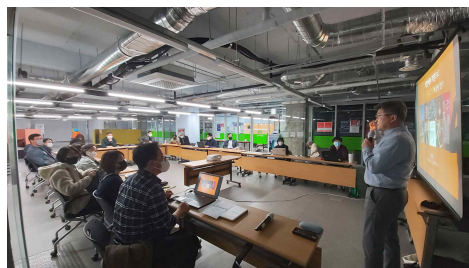
차시	일시	주제	강사
1	10월 13일	광주 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2	10월 20일	도시기반구조로서의 경관과 녹지	조동범 전남대 교수
3	10월 27일	도시를 만드는 공공건축	박홍근 건축사
4	11월 3일	개발에서 재생으로 - 혁신, 공유, 연결에 답이 있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5	11월 10일	도시계획의 역사와 광주의 변천	윤희철 광주지속협 사무총장
6	11월 17일	아파트의 역사, 아파트 문제의 대책	박인석 명지대 교수
7	11월 24일	각종 도시·건축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 평가 : 도시계획 시민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민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과 협력체계 마련

□ 활동사진



도시계획시민포럼(4/28)



도시건축시민대학(11/3)

환경교육

□ 사업목적

- 환경교육센터 창립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적 활동기반 마련
- 다양한 계층, 주제에 맞는 사회환경교육 실행
- 지역내 환경교육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환경교육센터 창립 및 운영
- [신규]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동아리 구성
-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체계화

□ 사업내용

1. 어린이자연나들이- 중외공원 숲+놀이발굴단

- 기간 : 9월~11월, 매월 1회
- 참여자 : 매회 초등학교생 24명 내외
- 프로그램
: 9월 25일(토) 광주의 생태습지- 용봉제
: 10월 23일(토) 팔각정과 문화광장
: 11월 20일(토) 편백숲과 제주고사리

2. 환경교육 사례집 발간

- 기간 : 11월
- 내용 : 지난 10년간 진행된 환경교육프로그램 목록화, 프로그램 사례집발간
- ※ 사회환경지도사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진행

□ 사업평가

-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환경교육프로그램 목록과 사례집을 발간
- 환경교육센터 창립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지 못함.
- 환경동아리를 비롯한 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활동이 진행되지 못함.

지역 및 전국연대

[전국환경운동연합]

1.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
2. 전국 대표자회의/ 임시대표자 회의
3. 전국 국처장단회의, 총처장단 회의
4. 전국 환경연합 위원회(에너지, 회원, 4대강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참여
2.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광주NGO센터]

1. 운영위원 참여
2. 시민단체활동가 역량 강화, 시민사회단체조직강화 사업 등 참여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운영위원회/ 분기별
2. 실천사업 분과별 참여(물하천, 기후에너지, 자원순환 등)
3. 기타 협력사업 진행

[지역 및 전국현안대응]

1. 광주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2.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3. 탈핵, 4대강재자연화, 에너지, 미세먼지, 권역별 대기질개선 관련 전국연대

부설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1. 광주 동구 쓰레기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

- 기간 : 7월 ~ 12월
- 내용 ;
 - 1) 생활실험 홍보 및 참가자(100인 실험단) 모집 (7월 22일~ 7월 30일)
 - 2) 운영 팀장 역량강화 워크숍: 7월 21일, 8월 6일, 8월 24일
 - 3)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리빙랩), 실천단 운영
 - 발대식: 8월 11일 (*성과 보고회 11월 30일)
 - 실험운영 : 8월 16일 ~ 11월 24일
 - 4)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육_ 재활용선별장 견학(9월 29일~ 30일),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구요 도서 및 홍보물 제공 등
 - 5) 100인 실험보고서 자료 분석 및 발표
 - 월별 결과 발표, 언론 보도 100회 이상(KBS, SBS, CBS 방송 및 한겨레 언론 등)
 - 배출 전체 27% 감량, 일반쓰레기 30% 감량, 일반쓰레기 비중 감소, 재활용 비중 증가
 - 6)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 성과보고회
 - 일시/장소: 11월 30일(월)오전 9시 30분 / 동구청 6층 대회의실
 - 참석: 임택 동구청장, 조진상 이사장, 박미경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실험단 및 해설사 50여명
 - 내용 : 실험과정 및 성과 보고, 실험단 참여소감 발표, 감사장 수여
 - 7) 쓰레기 줄이 100일 도전, 생활실험. 성과 토론회
 - 일시/장소 : 12월 14일(화) 오후2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강당

2.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 기간: 4. 19 ~ 11. 19
- 내용:
 - 프로그램 개발보완과 운영을 사업추진위원회 2회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상 자원순환 교육 54회

3. 광주 남구 재생에너지 여건 조사 및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개발 연구

- 기간 : 7월 ~ 11월

- 내용 :

- 1) 남구 지역 내 대상지 조사, 보급 모델 발굴 및 주민 인식도, 수용도 조사
- 2) 남구 지역 특화 및 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모델 개발

- 추진사항

- 지역 특화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을 위한 간담회(10월 26일 등)

4. 제2차 무등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 과업기간 ; 2021년 12월 22일 ~ 2022년 12월 14일

- ※ 착수계 제출 : 2021년 12월 20일

특별보고- 사단법인 전환

□ 목적

-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본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 공익법인으로 전환

□ 경과

1. 전국 환경운동연합 논의 경과

1) 2021 임시 전국 대표자회의(온라인)

- 일시 : 5월 1일(토) 14:00
- 내용 :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설립,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자체 논의를 통해 사단법인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설립

2) 환경운동연합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온라인)

- 일시 : 9월 11일
- 내용 :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 해산을 의결

2.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전환 경과

1) 집행위원회 의결

- 일시 : 4월 8일(목) 저녁 6시 30분
- 내용 : 사단법인 추진을 의결

2)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 일시 : 5월 26일(수) 18시 30분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대강당+온라인 ZOOM회의실
- 내용 : 사단법인 전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12월 31일까지 회원과 재산 이관 등)

3)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 일시 : 5월 26일(수) 19시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대강당+온라인 ZOOM회의실
- 내용 : 사단법인 임원/사업계획 등 안건 의결

3. 공익법인 전환에 따른 회원 및 재산 이관

1) 회원 이관

-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사)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관
- CMS 출금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사)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
- 자동이체, 지로 회원들에게 개별통지를 통해 이관 안내(10월~12월)

2) 재산이관

사무실 공간

- 주소 : 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 전세금 : 4,000만원

현금 자산

- 1월 3일~5일, 현금 예금을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계좌로 이관
: 장기발전기금과 운영비를 통합해서 이관
: 1월 - 장기발전기금 별도 계정 관리
※ 4대 보험료, 기타소득, 소득세 등 예수금 잔액 3,658,343원 제외

사무처 활동가 고용승계

- (사)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계약 체결
- 대상자 : 이경희, 최지현, 김종필, 정은정, 김현아

향후 계획

- 2022년 공익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 운영체제 단일화하고 공익법인 운영에 따른 세무, 행정 규칙 이행

2021년 재정결산(안)

2021 일반회계 결산

■ 일반회계 결산

(단위 : 원)

수입부		지출부			
항 목	결산	항 목	결산		
전년도 이월금		차기 이월금			
59,472,981		143,006,142			
회비	자동이체	134,529,000	경상비	공과금	전화통신비 1,781,690
	지로납부	1,020,000			건물관리비 4,121,680
	직접납부	4,115,000		구매	소모/수선비/신문 2,528,520
	평생회원	5,000,000			비품비 2,151,080
	특별(임원)회비	3,805,000		후생 복지	매식비 5,533,050
	소계	148,469,000			퇴직적립금 11,418,945
후원비	후원의 밤 등 기부금	14,144,552	보험료	4대보험료 13,593,705	
	회보광고	0		인건비	급여 125,364,200
	소계	14,144,552	상여금 20,236,400		
사전비	민간협력사업	143,680,700	경상비소계 186,729,270		
	교육참가비	561,000	중점 사업	환경교육 25,387,291	
	소계	144,241,700		탈핵, 기후보호운동 5,065,500	
기타	자료대여, 판매 등	200,000		생태도시 916,330	
	고용지원 /결산이자	184,118,519 ¹⁾		광주천,영산강살리기 53,527,130	
소계	184,318,519	자원순환 61,539,330		소계 146,435,581	
1) 장기발전기금 159,637,989원 포함		사업비		회원 사업	정기간행 (소식지, 월간지) 11,092,00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3,585,480		
			회원모임지원 2,0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16,186,933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3,291,410		
			소계 36,155,823		
		조직 및 특별 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1,676,470		
			후원의 밤 510,000		
			중앙/지역연대 9,909,980		
			소계 12,096,450		
사업비 소계 194,687,854		기타	기타	장기발전기금 10,000,000	
				기타지출 6,723,488	
				사단법인 전출금 9,500,000	
				기타소계 26,223,488	
		지출 407,640,610			
수입 491,173,771	지출계 550,646,752				
수입계 550,646,752	지출계 550,646,752				

■ 현금 및 예금명세

(단위 : 원)

예금종류	은행	계좌번호	잔액
운영비	광주	010-107-30****	0
운영비	광주	053-107-30****	141,366,341
운영비	광주	001-107-38****	0
운영비	광주	001-107-38****	0
운영비	광주	053-107-30****	1,000,000
사업비	광주	003-107-31****	0
사업비	광주	001-107-38****	0
사업비	광주	003-107-31****	0
사업비	광주	003-107-31****	0
사업비	광주	003-107-31****	0
사업비	광주	003-107-31****	61
사업비	광주	1107-020-52****	0
운영비	농협	617-01-14****	389,720
사업비	광주	1107-021-08****	0
사업비	광주	1107-021-12****	0
운영비	사무실 현금		250,020
합계			143,006,142

2021 별도계정 결산

■ 장기발전기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67,901,606	차기 이월금	0
장기발전기금 적립	10,000,000	운영비 차입	20,000,000
이자수익	1,736,383	사단법인 전환 회계 이관에 따른 통장이동	159,637,989
합계	179,637,989	합계	179,637,989

■ 4대보험, 소득세 예수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5,006,060	차기이월금	3,658,343
4대보험료	25,996,240	4대보험료	26,541,820
기타, 근로소득세	7,950,310	기타, 근로소득세	7,621,150
결산이자	223	근로자 연말정산	1,131,520
합계	38,952,833	합계	38,952,833

■ 4대보험, 소득세 예수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은행	계좌번호	금액
광주	055-107-00****	3,658,343
합계		3,658,343

■ 퇴직적립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45,681,300	차기이월금	56,826,150
퇴직금 적립	11,196,050	퇴직연금 관리수수료	51,200
합계	56,877,350	합계	56,877,350

■ 퇴직적립금 예금명세

(단위 : 원)

은행	계좌번호	금액
우리	1121-801-00****	56,826,150
합계		56,826,150

■ 2021년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년이월금	948,459	차기이월금	681,220
분담금	800,000	운영비	119,000
이자	61	연대활동	200,000
		활동비	748,300
합계	1,748,520	합계	1,748,520

■ 2021년 무등산난개발저지 시민연대

(단위 : 원)

수입부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월이월금	229,003	차기이월금	479,044
분담금	250,000	연대활동	0
결산이자	41		
합계	479,044	합계	479,044

2021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결산

■ 일반회계 결산(사단법인 21.6~12월)

수입부			지출부			
항목		결산	항목		결산	
이월금		-	차기 이월금		51,346,475	
회비	자동이체	13,006,000	경상비	공과금	전화통신비 0 건물관리비 4,012,760	
	지로납부	0		구매	소모/수선비/신문	530,070
	직접납부	0			비품비	196,000
	평생회원	6,000,000		후생복지	매식비	1,670,850
	특별(임원)회비	345,000			퇴직적립금	0
	소계	19,351,000				
후원금	후원의 밤 등 기부금	38,604,160	보험료	4대보험료	0	
	회보광고	0	인건비	급여	0	
	소계	38,604,160		상여금	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3,000,000	경상비소계		6,409,680	
	교육참가비	0	중점사업	환경교육	20,000	
	소계	3,000,000		탈핵, 기후보호운동	0	
기타	사단법인 전입금	9,500,000		생태도시	374,360	
	결산이자	755		광주천, 영산강살리기	46,500	
	소계	9,500,755		자원순환	6,660	
				소계	447,520	
			사업비	회원사업	정기간행 (소식지, 월간지)	3,852,05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4,822,680
					회원모임지원	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659,300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17,000
					소계	9,351,030
			조직 및 특별사업	조직 및 특별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304,000
					후원의 밤	1,798,930
					중앙/지역연대	704,530
					소계	2,807,460
			사업비 소계		12,606,010	
			기타	기타	장기발전기금	0
					기타지출	93,750
					기타소계	93,750
수입		70,455,915	지출		19,109,440	
수입계		70,455,915	지출계		70,455,915	

■ 현금 및 예금명세

(단위 : 원)

예금종류	은행	계좌번호	잔액
운영비	광주	1107-021-24****	33,851,240
운영비	광주	1107-021-24****	5,000,075
운영비	광주	1107-021-24****	0
운영비	제일	725-20-27****	12,495,160
합계			51,346,475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 원)

임대인	기간	금액
대광새마을금고	2017년 12월~(2021년 12월 재연장)	40,000,000

[예-결산 실적 비교]

(단위 :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예산	결산	실적	달성률	항목	예산	결산	실적	달성률			
이월금	59,472,980	59,472,981	-	-	차기이월금		34,714,628	-	-			
회비	자동이체 등	158,600,000	152,670,000	-5,930,000	96%	경상비	공과금(통신, 관리비 등)	9,300,000	9,916,130	616,130	107%	
	평생회원	4,000,000	9000000	5,000,000	225%		소모품 및 수선비	7,400,000	3,058,590	-4,341,410	41%	
	특별(임원)회비	5,000,000	4,150,000	-850,000	83%		비품 구입비	5,500,000	2,347,080	-3,152,920	43%	
	소계	167,600,000	165,820,000	-1,780,000	99%		후생복지	19,613,500	18,622,845	-990,655	95%	
후원금	후원금 등	95,000,000	52,748,712	-42,251,288	56%		보험료	12,098,000	13,593,705	1,495,705	112%	
	회보광고	1,000,000	0	-1,000,000	0%		인건비	140,609,000	145,600,600	4,991,600	104%	
	소계	96,000,000	52,748,712	-43,251,288	55%		소계	194,520,500	193,138,950	-1,381,550	99%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00,000,000	146,680,700	46,680,700	147%		사업비	중점사업	131,000,000	146,883,101	15,883,101	112%
	교육 참가비	5,000,000	561,000	-4,439,000	11%			회원사업	63,700,000	45,506,853	-18,193,147	71%
	소계	105,000,000	147,241,700	42,241,700	140%			조직/연대	18,900,000	14,903,910	-3,996,090	79%
기타	자료대여, 판매 등	500,000	200,000	-300,000	40%	소계		213,600,000	207,293,864	-6,306,136	97%	
	고용지원금/기타수입	1,427,020	24,481,285	23,054,265	1716%	기타	기타지출	1,879,500	4,817,236	2,937,736	256%	
	소계	1,927,020	24,681,285	22,754,265	1281%		장기발전기금	20,000,000	10,000,000	-10,000,000	50%	
					소계		21,879,500	14,817,236	-7,062,264	68%		
수입	370,527,020	390,491,697	19,964,677	105%	지출	430,000,000	415,250,050	-14,749,950	97%			
수입계	430,000,000	449,964,678	19,964,678	105%	지출계	430,000,000	449,964,678	19,964,678	105%			

※ 비교를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광주환경운동연합 결산 내역을 통합하여 정리함

※ 기타 수익에서 장기발전기금 159,637,989원은 제외함

[전년대비 증감률 비교]

(단위 :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20	2021	증감	증감율	항목	2020	2021	증감	증감율		
이월금	37,700,245	59,472,981	21,772,736	158%	이월금	59,472,981	34,714,628	-24,758,353	58%		
회비	자동이체 등	142,447,100	152,670,000	10,222,900	107%	경상비	공과금 등	8,675,033	9,916,130	1,241,097	114%
	평생회원	6000000	9000000	3,000,000	150%		소모품/수선	964,860	3,058,590	2,093,730	317%
	특별(임원)회비	3,945,000	4,150,000	205,000	105%		비품 구입	1,350,000	2,347,080	997,080	0%
	소계	152,392,100	165,820,000	13,427,900	109%		후생복지	16,071,960	18,622,845	2,550,885	116%
미연하	후원금	76,780,772	52,748,712	-24,032,060	69%	보험료	10,496,240	13,593,705	3,097,465	130%	
	회보광고	0	0	0	0%	인건비	124,133,920	145,600,600	21,466,680	117%	
	소계	76,780,772	52,748,712	-24,032,060	69%	소계	161,692,013	193,138,950	31,446,937	119%	
사업비	민간협력	112,200,000	146,680,700	34,480,700	131%	중점사업	중점사업	123,290,846	146,883,101	23,592,255	119%
	참가비	2,130,000	561,000	-1,569,000	26%		회원사업	3,543,160	5,065,500	1,522,340	138%
	소계	114,330,000	147,241,700	32,911,700	129%		조직 연대	10,876,470	1,290,690	-9,585,780	116%
기타	자료대여등	200,000	200,000	0	0%	소계	137,710,476	153,239,291	15,528,815	123%	
	고용지원/기타	9,623,482	24,481,285	14,857,803	254%	기타	기타지출/전출	754,200	4,817,236	4,063,036	639%
	소계	9,823,482	24,681,285	14,857,803	251%		장기발전기금	0	10,000,000	10,000,000	0%
					소계		754,200	14,817,236	14,063,036	1965%	
수입	353,326,354	390,491,697	37,165,343	111%	지출	331,553,618	415,250,050	83,696,432	125%		
수입계	391,026,599	449,964,678	58,938,079	115%	지출계	391,026,599	449,964,678	118,411,060	136%		

※ 비교를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광주환경운동연합 결산 내역을 통합하여 정리함

※ 기타 수익에서 장기발전기금 159,637,989원은 제외함

[비품 명세]

관리번호	품 명	수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 고
1996-01-01	잡지꽂이	1	1996		폐기(2021)
2001-01-11	목재6단책장	11	2001	950,000	
2002-01-03	앵글형 책장	3	2002	60,000	
2003-01-02	키폰	2	2003	560,000	
2003-02-02	책장 철재 유리 책장	2	2003		
2003-03-01	책장형파일박스4단	1	2003	140,000	
2003-06-01	팩스 목재 받침대	1	2003	100,000	
2004-01-01	짐수레	1	2004	37,800	
2005-01-01	필름 스크린	1	2005	600,000	
2005-02-01	앰프	1	2005	600,000	폐기(2021)
2007-01-06	목재3단책장	6	2007	1,050,000	
2007-06-01	전기온풍기(REH-221S)	1	2007	140,000	
2010-02-01	레이저팩스	1	2010	375,000	폐기(2021)
2010-03-02	기부금함	1	2010	120,000	폐기
2010-04-02	외장하드(1테라)	2	2010	238,000	
2011-07-01	전기주전자	1	2011	26,600	
2012-01-01	데스크탑+모니터	1	2012	750,000	폐기(2021)
2012-02-01	노트북1	1	2012	866,000	
2012-04-01	근조기	1	2012	250,000	
2012-05-01	깃발	1	2012	50,000	
2012-09-06	전화기	6	2012		기증
2012-10-14	목재6단책장	14	2012		기증
2013-02-18	강의실 접이 책상용 의자	37	2013		기증
2013-04-01	복사기(Docu2508)	1	2013	1,700,000	
2013-09-02	야외 접이 테이블	2	2013	70,000	
2013-13-01	태양광 발전셋트	1	2013	485,000	
2013-14-01	태양열조리기	1	2013	220,000	
2013-12-02	책상 서랍장	2	2013	70,000	
2014-01-01	전자저울	1	2013	120,000	
2014-01-02	데스크탑	2	2014	140,000	
2014-04-06	시스템책상서랍장6기	6	2014	60,000	
2014-05-01	디지털카메라	1	2014	430,000	
2014-07-01	하드디스크	1	2014	93,820	
2014-12-30	쌍안경	2	2014	340,000	
2014-12-31	미니앰프	1	2014	297,000	
2015-02-11	외장하드_2TB	2	2015	132,900	
2015-05-27	사무용의자	1	2015	203,500	
2015-05-28	사무용의자	1	2015	203,500	
2015-10-14	카메라배터리	1	2015	60,000	

2015-11-07	데스크탑컴퓨터	1	2015	610,000	
2015-11-07	모니터1	1	2015	270,000	
2015-12-29	수중카메라(HERO4)	1	2015	538,200	
2016-01-06	216000아름천공기	1	2016	145,000	
2016-01-08	외장하드2TB	1	2016	119,900	
2016-05-02	회원음성녹음전화기	1	2016	85,400	폐기(2021)
2016-05-27	모니터+데스크탑컴퓨터7	1	2016	300,000	
2016-12-30	팬히터	1	2016		
2016-12-31	자전거	1	2016		기증
2017-07-07	모니터(SD300)	2	2017	308,000	
2017-12-05	사무용 책상	4	2017	200,000	
2017-12-06	사무용 의자	4	2017	90,000	
2017-12-15	회의실 책상	12	2017	504,000	
2018-01-01	세절기(PK1003CD)	1	2018	133,500	
2018-02-01	냉장고(FR-C154RPS)	1	2018	470,000	
2018-03-01	진공청소기(CVL-020LS)	1	2018	130,000	
2018-08-01	앰프(MP-B900)	1	2018	198,000	
2018-10-01	라돈측정기(라돈아이)	6	2018	1,200,000	
2018-12-01	컬러레이저프린터(SI-J1560)	1	2018	170,000	
2018-12-02	월계획 백색칠판	1	2018	55,000	
2018-12-02	강의용 백색칠판	1	2018	53,000	폐기(2021)
2018-12-31	목재장식장	1	2018	220,000	
2019-02-07	노트북(HP)	1	2019	518,870	
2019-03-27	컬러레이저프린터(SI-J1560)	1	2019	149,000	
2019-04-04	짐수레(검정)	1	2019	61,780	
2019-06-06	씨게이트 외장하드	1	2019	95,000	
2019-09-23	전자레인지	1	2019		기증
2020-04-01	사무용 책상	2	2020	80,000	
2020-07-10	업무용 의자	2	2020	80,000	
2020-12-17	데스크탑	3	2020	1,190,000	폐기(2021)
2021-02-04	복사기(복합기)	1	2021	1,925,000	
2021-02-10	회의용 컨퍼런스콜 블루	1	2021	119,000	
2021-04-30	마이크	1	2021	30,000	
2021-07-26	공유테이블	1	2021	196,000	
2021-12-06	노트북, 케이스	1	2021	894,500	
2021-12-06	아이패드 프로11 3세대	1	2021	939,000	
2021-12-06	애플펜슬 2세대	1	2021	159,000	
2021-12-06	ATEM mini pro	1	2021	552,000	
2021-12-06	무선마이크	1	2021	247,800	
2021-12-06	조명, 스탠드	1	2021	373,870	

2022년 조직구성(안)

임.위원 선임 및 사무처 (안)

■ 고문: 정철웅, 전홍준, 정구선, 안행강, 윤장현,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임낙평, 이정애, 이인화

■ 감사(임기중) : 노희정, 김길수

■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 이사(임기중) : 박태규(이사장),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임낙평, 이경희(상임이사)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최홍엽공동의장

- 당연직: * 위원회 위원장, 회원모임 대표, 사무처장·국장 등

물한방울_홍한준_국윤주/광주천지킴이_모래톱_홍기혁/환경통신원_이영곤/ **시사모_정석주** /용융C자원순환강사단_신민정/서구회원모임_서로_박산천/ 사무처장_이경희, 사업국장_김종필

- 선임직: 김태형, 김홍숙, 문명우, 박덕희, 박정운, 이채연, 임재호, 정순일, 정린, 조만형, 조영태, 조훈형

→ 선임직(신임): **윤희철, 박상은, 김승정(임기 3년)**

■ 사무처

- 사무처장 _이경희

- 정책실장 _ 최지현(비상근)

- 국장 _ 김종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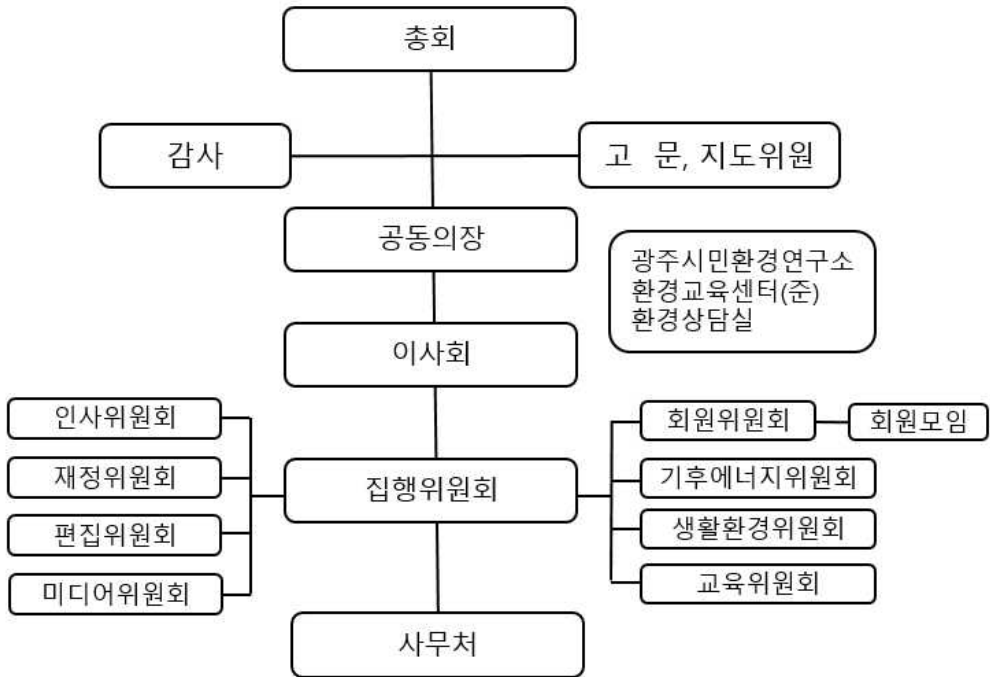
- 팀장 _ 정은정

- 간사 _ 김현아

■ 부설기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_ 조진상 이사장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도



2022년 사업계획(안)

2022년 사업계획 안

□ 사업기조

-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정책화
- 2045 광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탄소흡수원 확대 등 시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활동 확대
- 청소년, 청년세대의 참여 등 세대별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소통 강화

□ 중점 및 연속사업

1. 기후위기 대응, 2030에너지전환

- 시민 2030 온실가스 배출 60% 줄이기 ‘
- 공공온실가스 줄이기 모니터 및 개선활동
- 시민참여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선 활동
- 고준위핵폐기물, 2025년 영광핵발전소 1호기 폐로 등 탈핵 여론 확대

2. 물, 하천 살리기 활동

- 도시 물순환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 조사·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 교육, 조사 활동, 시민참여형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시민 조직화
- 영산강 수질 및 생태, 농업 영향 조사

3. 생태도시- 도시의 생태건강성 회복

- 무등산 현안문제 진단 및 해결
- 주민과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숲의 질적 제고
- 도시공공성 강화활동_ 시민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도시 현안 대응 및 포럼

4. 자원순환

- 쓰레기 문제해결 및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실천 추진
- 지자체별 마을사업 연계와 자원순환 강사단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감축사례 개발

5. 환경교육

- 주제별, 계층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실행
- 환경교육센터 준비위원회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창립

□ 회원 및 시민참여 사업

1. 청소년, 청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연계,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회원 모임 조직

2. 회원, 시민참여프로그램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참여프로그램 운영
- 회원 재능발굴 프로그램- 회원강좌
- 회원모임 활성화- 물한방울 흥한춤, 모래톱 등 참여 확대

□ 특별사업 - 대선, 지선 정책 발굴

- 대선 : 전국환경운동연합과 연대, 기후환경위기를 바꿀 녹색전환 의제 제안
- 지방선거

: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네트워크와 지역 연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제

: 광주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 정책팀 운영을 통해 '광주를 바꿀 녹색의제' 발굴

회원 및 시민참여

□ 사업목적

-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회원으로 기후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행동 조직
-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통해 기후환경운동 확장

□ 사업개요

-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시민행동 프로그램 제안과 회원으로 연계
- 청소년, 청년 프로그램 발굴
- 회원의 재능(퇴직자의 전문성)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활동

□ 사업내용

1. 회원 확대 사업

1) 회원 배가 활동-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회원확대

- 기간 : 연중
- 내용

- : 일상적 및 집중 회원 확대기간 설정을 통해 회원배가 활동
- : 다양한 기후환경활동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회원활동으로 연계
- :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발굴, 영상 아카이브를 통해 회원 연계

2) 자발적 회비 증액활동

- 기간 : 집중 기간 설정
- 내용 : 회원확대캠페인과 연계하여 회비 증액프로그램

2.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1) 회원강좌- 듣고 싶은, 함께 나누고픈 강좌

- 기간 : 2월~11월(매월 1회)
-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내용 : 일상에서 공유하고 싶은 정보와 지식을 나눔.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을 발굴

2) 회원 탐방활동- 우리 지금 만나

- 기간 : 연중(월 2명의 회원 탐방)

- 내용 : 신입회원, 회원가게, 회원 모임, 회원 챌린지 등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탐방하고 블로그 등에 소개

3) 회원소풍

-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 내용 : 도심 및 광주 주변의 환경현장을 회원 및 가족들과 답사

3. 회원조직사업

1) 신규회원모임 조직 및 운영

- 청년 - 생태 감성/ 청소년- 미디어 연계를 통해 청년과 청소년 모임 운영

2) 기존 회원 모임 조직 활성화

- 생태문화답사모임 물한방울 흥한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등 기존 회원 활성화
- 회원모임의 프로그램 홍보, 회원참여 프로그램 운영

4. 회원 모심의 날 운영

-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 내용 : 30년 이상 회원, 평생회원, 가족 및 단체회원 등을 모시고 감사의 뜻과 함께 활동 성과 공유

5. 미디어 회원 소통

1) 월간 식혜- 유튜브 라이브

- 기간 : 1월~12월(매월 1회)
- 내용
 -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환경이슈, 활동 소식 등 방송

2) H씨의 '성명서' 읽어드립니다.

- 기간 : 1월~12월(매월 1회)
- 내용
 -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환경연합 성명서를 쉽게 읽어주는 활동

3) SNS 소통

- 기간 : 연중

- 내용
 - :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의 온라인 소통 강화
- 4)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 기간 : 월 2회
 - 내용 : 활동소식, 행사 안내 등을 중심으로 이메일 뉴스레터와 문자 발송

6. 지면을 통한 소통

1) 소식지 밝은 삶 맑은 터 간행

- 기간 : 격월간, 연 6회 발행
- 내용 : 칼라 인쇄를 통해 생동감 있는 활동 소식 전달, 지면을 통한 회원 소통기능 강화

2) 월간지 ‘함께 사는 길’ 발송

- 기간 : 연중, 매월 1회
- 내용 : 환경전문잡지 월간 ‘함께 사는 길’ 구매, 구독을 원하는 회원에게 발송

□ 회원모임

[물 한 방울 흙 한 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답사 활동
- 회원 및 회원가족 중심의 생태문화답사 모임
- 광주 인근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한 탐방프로그램운동을 통해 회원참여를 활성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정기모임 진행
- 광주천, 영산강, 지류하천 답사·모니터링·감시활동
- 광주천 지천 살리기 운동
-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천 생태교육 진행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시사모]

- 매월 정기모임 개최
- 시와 문학작품 낭송 및 감상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회원 간의 단합·친목활동 전개
- 문화공연 참여, 작가와의 만남, 자작시 창작 및 발표

- 시낭송회 자원 활동, 환경운동연합 활동 지원

[서구회원모임 서로]

- 서구지역 회원들의 모임
- 매월 「함께 사는 길」 읽기모임/ 매월 정례활동을 통해 소통과 생활 속 환경실천 확대

[자원순환시민강사 용용C]

- 매월 정기모임 진행
- 자원순환 시민강사활동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교육활동 진행
- 자원순환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규- 자연생태교육 강사 모임]

- 환경연합 자연생태교육 강사들로 구성, 역량강화와 함께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회의 및 위원회 운영

1. 정기총회 : 이사회(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 회의 : 정관에 의거 매년 1월 중 소집
- 내용 : 정관 제정 및 개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이사, 공동의장 및 감사·집행위원, 사무처장 선출, 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및 의결 등

2. 이사회

- 회의 : 정기회의(총회 전 1회), 임시회(필요시)
- 내용 : 정관에 규정된 안건 등

3. 집행위원회 : 상시적 사업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 및 집행

- 회의 : 정기회의(매월 1회), 임시회의(필요 시 집행위원장 소집)
- 내용 : 사업 및 활동내용,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와 추진방향 논의

4. 자문회의 : 고문, 공동의장, 감사, 부설기관 대표가 참여

- 회의 : 정기회의(집행위원회와 분기별로 연석회의), 임시회의(필요시 공동의장 소집)
- 내용 : 사업 및 조직 운영 자문

5. 상설위원회

- 1) 인사위원회 : 사무처 활동가 채용 등 사무처 인사 협의
- 2) 재정위원회 : 후원의 밤, 재정 사업 협의 등
- 3) 미디어위원회 : 유튜브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사업 기획 및 실행
- 4) 편집위원회 : 격월간 소식지 「밝은 삶 맑은터」 기획 및 편집
- 5) 회원위원회 : 회원확대 캠페인 기획 및 추진, 회원참여프로그램 기획
- 6) 기후에너지위원회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활동 기획 및 실행
- 7)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생태도시의 비전 수립, 도시계획 현안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 8) 생활환경위원회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의제 설정

6.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임 임원·활동가 모임

- 전 임원, 활동가 모임. 반기별 정례 모임
- 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 공유, 친목도모

환경교육

□ 사업목적

-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환경교육 진행
- 주제별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담할 환경교육 강사 발굴 및 양성
- 지역내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교육정책 모니터링

□ 사업개요

- 기후변화, 자원순환, 미세먼지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환경교육센터 준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환경교육센터 창립

□ 사업내용

1. 주제별,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미세먼지, 자원순환, 기후변화, 광주천 등 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환경교육강사단 용용씨,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등 환경교육 강사 역량 강화
- 초, 중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접목 운영

2.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어린이자연나들이 - 숲+놀이 발굴단

- 기간 : 4월~7월, 9월~11월
- 내용
: 도시공원 및 도시 주변 숲에서 놀이와 접목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초, 중등 동아리 활동 연계 교육프로그램

- 기간 : 학기중
- 내용 : 기후에너지, 자원순환, 하천생태 등과 연계한 초, 중등 동아리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자연생태교육 강사 모임 구성 및 운영

- 환경연합 자연생태교육 강사들로 구성, 역량강화와 함께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환경교육센터 준비위원회 활성화

- 환경교육센터 창립의 기반이 될 준비위원회 재구성
-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기후환경교육활동 모니터링
-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연대활동

□ 기대효과

- 환경교육을 통한 일상적 실천활동을 연계하고 환경운동 확장
- 세대별, 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환경교육 정착
- 환경교육센터 창립 및 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환경교육 활성화 기여

기후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운동]

□ 사업목적

- 시민 실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 ' 2030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 실천활동
-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 ' 2026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 촉구활동
-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활성화

□ 사업개요

- 안되면 시민이라도 한다 - ' 시민 2030 온실가스 배출 60% 줄이기 '
 - 2022년 시민 1인당 온실가스 0.2 tco2 줄이기 시민실천활동
 - 시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
- 공공온실가스 줄이기 모니터 및 개선활동
 - 우리동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현황 조사 및 건물에너지소비량 조사
 - 조사 결과 분석 및 발표, 개선 촉구 활동
- 시민참여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진 활동
 - 제8대 지방선거 탄소중립 정책 공약 만들어 제안하기
 - 탄소인지예산 시민기획단 구성 및 운영
 -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사업내용

1.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시민실천활동
 - 1) 2022년 시민 1인당 온실가스 0.2 tco2 줄이기 실천활동
 - (1) 시민실천단 모집 및 운영
 - 대상 : 광주시민 100명
 - 운영기간 : 연중
 - 내용 : 대기전력줄이기, 베란다태양광설치하기(or 주택태양광), 시민발전소 참여하기
 - (2) 시민실천캠페인
 - ' 기후위기 비상행동 금요캠페인 '

- : 에너지절약, 1인 1개 시민발전소 갖기 홍보, 시민 RE100 참여 캠페인
- 웹홍보물 제작 및 배포

2) 재생에너지 학교

- 태양광발전의 이해 및 실습. 태양광 발전 상태 진단하는 법.
- 도시형 풍력발전 : 소형풍력발전 DIY.

3)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동아리 활동 '기후위기 간부'

- 활동기간 : 연중 /- 내용 : 탄소중립학교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4)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학습모임

- 대상 : 광주시민 및 활동가 대상 학습모임 운영
- 내용 : 언론기획기사, 국내외 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등을 학습하는 모임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실현

- 2026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촉구 활동

1) 공공기관 건물에너지소비 현황 조사 및 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조사

- 조사단구성 : 에너지강사단, 햇빛협동조합협의회, 에너지전환마을 등
- 우리동네 공공기관 건물에너지 소비량 조사 및 재생에너지 설치현황조사

2) 조사 결과 분석 및 발표, 개선 촉구 활동

3. 정책활동

1) 탄소인지예산 시민기획단 구성 및 운영

- 활동기간 : 2022년 상반기
- 탄소인지예산 이해를 위한 교육
-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기획단 모집 및 운영

2) 제8대 지방선거 대비 기후에너지 정책수립

- 활동기간 : 2022년 3월~5월
- 제7대 광주시 환경,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 평가 토론회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광주 시민정책 만들기 및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

□ 기대효과

- 장기적인 시민참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여론 조성
- 시민실천활동, 청소년활동, 재생에너지학교, 학습모임 등 기후위기 대응 시민실천역량 강화

[탈핵]

□ 사업목적

- 고준위핵폐기물 반대 여론 조성
- 영광 핵발전소 대응활동 강화
- 지역 탈핵여론 조성 활동

□ 사업개요

-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바로 알기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바로 알리기
 - 고준위핵폐기물 대응 지역 여론 조성 : 광역의회 및 시,도 반대 성명서 채택
- 영광 핵발전소 대응 활동 강화
 - 한빛4호기 재가동 시도 모니터 강화, 한빛 핵발전소 사건, 사고 모니터링 및 알림활동
 - 한빛 1호기 폐로 대비 정책 간담회 or 토론회, 기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지역 탈핵 여론 조성 활동
 - 기후위기×탈핵, 후쿠시마 11주기 행사, ‘탈핵 1인 시위 100회’ 행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물질 해양방출 반대 홍보활동
- 탈핵연대활동
 - 탈핵대선연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한빛핵발전소호남권공동행동

□ 사업내용

1. 직접 대응 활동

1)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바로 알기

- (1)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바로 알리기
 - 정책간담회 or 면담 : 광역, 기초 의회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반대 성명서 채택을 위한 활동

2) 영광핵발전소 대응 활동

(1) 한빛 4호기 재가동 시도 대응 활동

- 한빛4호기 격납건물 공극 조사 및 시공 부실 실상 알리기 : 언론활동, 웹 홍보물 제작 등

- 한빛4호기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성명서, 언론기고 등,

(2) 한빛 핵발전소 사건, 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한빛 핵발전소 사건, 사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후 발표

(3) 2025년 한빛1호기 폐로 대비 정책 토론회

- 안전한 핵발전소 폐로 방안 찾기 정책 토론회

2. 홍보활동

1) 3.11 후쿠시마 11주기 행사

- 내용 : 3.11 후쿠시마 11주기 행사 및 탈핵 퍼포먼스

2)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배출 반대 활동

- 내용

·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실태 및 반대 홍보활동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국제행동의 날

3) 탈핵1인 시위 100회 행사

- 내용 :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탈핵1인시위 경과 보고 및 행사

4) 탈핵학교

- 기후위기와 탈핵을 주제로 강좌 진행

- 내용 : 핵발전소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SMR의 100% 이해하기 등

3. 연대활동 : 탈핵대선연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한빛 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 기대효과

- 후쿠시마 11주기,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해양배출 반대 국제행동의날, 고준위핵폐기물 바로 알기 등으로 탈핵 여론 조성

- 한빛 1호기 폐로 대비, 한빛4호기 재가동 시도 등 한빛 핵발전소 현안 대응활동으로 핵발전소 긍정여론 확산 대응

- 기후위기와 탈핵, smr(소형모듈원전), 생활방사능 등 탈핵이슈 다양화

[시민햇빛발전소]

□ 사업목적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기후변화와 핵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사업개요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설 및 2호기 운영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건설
- 광주지역 시민발전소 및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1.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 운영

가. 광주시민햇빛발전소 1호

- 규모 : 100kW / - 장소 : 광주그린카진흥원 옥상(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
- 2021년 발전용량 : 133,317kWh

나. 광주시민햇빛발전소 2호

- 규모 : 20kW / - 장소 : 지혜학교 기숙사 옥상(광산구 내등길 16)
- 2021년 발전용량 : 25,289kWh

2. 광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설립

- 규모 : 100kW 태양광발전소 설립

3. 광주지역 시민발전소 및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1) 시민발전소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내용 : 시민발전소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2) 시민발전소 부지 공동 발굴

- 공공기관 대상 시민발전소 부지 제공 업무협약 등

□ 기대효과

- 광주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건설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 시민발전소&에너지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시민운동 활성화 기여

생태도시

□ 사업목적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을 맞아, 무등산 현안 문제 점검 및 해결
- 도시녹지,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 생물 다양성 증진 활동
- 도시 공공성을 위협하는 각종 난개발 대응

□ 사업개요

- 무등산 현안문제 진단 및 해결
- 주민과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숲의 질적 제고
- 도시공공성 강화활동_ 시민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도시 현안 대응 및 포럼

□ 사업내용

1. '고마워요, 무등산' 무등산 국립공원 현안 문제 해결

- 기간 : 연중
- 내용
 - 무등산 난개발 대응활동 : 무등산 케이블카 등
 - 무등산 현안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 정상부, 군사도로 등 무등산 복원의 과제를 진단
 - 시민과 함께 하는 '고마워요, 무등산' 캠페인

2. 도시숲의 생물 다양성 증진 활동

1) 도시공원 시민네트워크 운영

- 기간 : 4월~12월
- 내용
 - 도시공원과 연계한 활동 주체 발굴
 - 도시공원 활동 지킴이,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2) 도시공원 및 비오톱의 생물 다양성 조사

- 기간 : 4월~10월
- 내용
 - 도시공원, 비오톱 등 도심지 생태공간 모니터링

3. 도시 숲 및 녹지 확장 프로그램

- 기간 : 연중
- 내용
- 도시녹지 네트워크, 푸른길 확장 등 도시의 녹지네트워크 구축

3. 도시개발 현안 대응활동

- 기간 : 연중
- 내용
- 도시 공공성을 위협하는 난개발 대응활동

4. 도시계획시민포럼

- 기간 : 연중
- 내용
- 도시계획 현안을 진단하고, 회원, 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

5.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생태도시 사업 발굴

□ 기대효과

- 국립공원, 도시공원, 가로 녹지 등의 연결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 광주를 만들어감
-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도시녹지에 시민참여 및 시민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생태도시의 공감대 확대

자원순환

□ 사업목적

- 교육, 홍보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다양한 쓰레기 감량 활동 진행
- 일회용품 사용(일회용 컵, 비닐 등),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정책요구

□ 사업개요

- 쓰레기 문제해결 및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실천 추진
- 지자체별 마을사업 연계와 자원순환 강사단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감축사례 개발

□ 사업내용

1. 생활환경위원회 운영
 - 기간 : 2월~12월
 - 내용 : 전문가와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회의 진행. 2022지방선거 자원순환 정책제안, 사업 일정·내용 공유, 역할분담, 평가·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2.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교육
 - 일자 : 연중
 - 내용 : 상반기 전문가 역량강화교육, 성인 대상 교육안 개발, 교육 참관 등 자원순환 강사단 용역C 중심으로 매월 정기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을 지속함
3.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홍보부스 운영
 - 기간 : 4~11월
 - 대상 : 초등·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300회
 - 내용 : 올바른 분리배출, 일회용품, 업사이클링, 음식물쓰레기 등 교육대상에 맞는 테마별 자원순환 교육·홍보 활동 진행
4. 자원순환 청소년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3~10월

- 내용 : 자원순환을 주제로 1회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학교 쓰레기문제 조사 등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동아리활동 진행
5. 투명페트 분리배출 실태조사
- 기간 : 5~6월
 - 대상 : 광주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역
 - 내용 : 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후 분리배출 현황, 선별장 처리를 조사, 기록. 조사결과 및 제안 발표
6. 학교 재활용 체계 개선 토론회
- 기간 : 7월
 - 대상 : 지자체 담당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 내용 : 학교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쓰레기 처리 현황 조사결과 공유. 학교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 논의
7.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교육 및 운영
- 기간 : 5~10월
 - 대상 : 시민 30여명
 - 내용 : 자원순환 교육 및 실태조사, 컨설팅, 홍보 활동을 통해 쓰레기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감량유도. 지속가능한 주민 실천조직 양성
8. 1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 기간 : 7~9월
 - 대상 : 시민 100여명
 - 내용 : 2개월간 생활 속 1회용품 안쓰기 단계별 도전 진행으로 시민인식 확대 및 홍보

□ 기대효과

- 지속적인 활동과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실천조직 구성 및 확대
-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 발굴
- 조사를 통한 광주 쓰레기 현황파악,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사고, 석면, 생활 속 유해물질 피해 발생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
-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등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성 인식제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

□ 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요구 및 시민대상 교육

□ 사업내용

1. 유해화학물질 대응 및 개선운동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우려 기업체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응과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

2. 미세먼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자 : 연중
- 내용 : 미세먼지 일반정보 외에 시민실천, 환경영향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교구 개발 및 운영

3. 생활화학제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생활화학제품, 페스트패션 등 생활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대효과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시민인식확산 및 대안실현 기대
-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대책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 견제의 역할

물·하천 살리기 운동

□ 사업목적

- 지역 물 순환을 위한 의제 발굴
- 도심 하천 오염원 현황 파악 및 개선책 마련
- 광주천, 영산강 재자연화, 생태 복원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활성화

□ 사업개요

- 도시 물순환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 시민과 함께 하는 하천 조사·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 교육, 조사 활동, 시민참여형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시민 조직화
 - 영산강 수질 및 생태, 농업 영향 조사

□ 사업내용

1. 광주천 모니터링

- 기간 : 3월 ~ 11월
- 장소 : 광주천 일원
- 내용 :
 -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천 주요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문제, 오·우수 합류식 관거 문제 대응
 - 불용수 문제, 물순환 등 광주천 수질보전을 정책 개발과 제안 활동

2. 광주천 해설 가이드 양성

- 기간 : 연중
- 장소 : 광주천 일원
- 내용 :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을 중심으로 광주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안내를 도울 수 있는 해설 가이드를 양성

3. 광주천 홍보 캠페인, 시민참여 활동

- 1) '아하! 광주천' 광주천 홍보
 - 기간 : 연중

- 내용 : 변화하는 광주천의 모습과 서식하는 하천 생물들을 내용으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

2) 시민참여 광주천 플로깅

- 기간 : 4월 ~ 11월
- 장소 : 광주천 일원
- 내용 : 시민과 함께 광주천을 따라 걸으며 광주천 일대 정화활동 진행

4. 황룡강 장록습지 보전활동

- 기간 : 3월~11월
- 내용 :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황룡강의 보전을 위해 민관 협력, 연대를 통해 활동 전개

5. 지역 하천 자연도 · 오염원 조사

- 기간 : 5월 ~ 9월
- 장소 : 광주천, 황룡강, 풍영정천 등 주요 하천, 지류하천
- 내용 :
 - 하수유입 문제, 하천 복개, 인공화, 직강화 등 하천의 문제 파악
 - 하천 오염원 등 조사를 통해 하천사업 · 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

6. 우리마을 내지천 도랑살리기

- 기간 : 4월~11월
- 내용 :
 -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에서부터 관리하여 광주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 민관협업을 통해 오염원 저감 및 수질개선 활동

7. 하천 생태체험교실

- 기간 : 연중
- 내용 : 광주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천 교육을 실시

8. 도시 물순환, 복개하천 복원 운동

1) 도시 물순환 현황 조사, 정책 제안 활동

- 기간 : 3월 ~10월
- 내용 : 도심 불투수층 현황 조사 및 평가. 정책 간담회,

2) 잃어버린 물길을 찾아서- 동계천, 양동 복개하천 복원 운동

· 기간 : 연중

· 내용 :

-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모니터링, 하천 시설 평가 개선 활동

- 동계천 복원, 양동복개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정책반영 촉구 활동(토론회, 현장 답사 등 추진)

9. 영산강 자연성 회복 운동

1) 영산강 수질 및 생태, 농업 영향 조사

· 기간 : 연중

· 내용 : 영산강 분류, 영산호 등 녹조 및 수질 조사, 농작물 조사를 통해 영산강 현황 파악, 수질개선 생태복원 정책 제안 활동 추진

2) 하구 생태 복원(하굿둑 해수유통), 보해체 등 영산강 연속성 회복, 건강성 증진

· 기간 : 연중

· 내용 : 정부의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 결정에 따른 실행 촉구. 영산강 자연성 회복 사업 추진 촉구 활동. 하굿둑 해수유통 공론화, 보해체 운동 관련 영산강유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활동 (20대 대선, 6월 지방선거 공약 반영 등)

10. 제 21회 한국 강의 날 광주대회

· 기간 : 8월 중

· 내용 :

- 광주의 하천 생태계 보존 및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목표로 구성된 하천 네트워크로 광주 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 장륙습지와 광주천을 전국에 알리고 강과 하천 살리기 운동을 활성화

□ 기대효과

- 광주천 등 지속가능 하천관리 기여, 하천 자연성 회복 등

- 하천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와 지속가능한 하천에 대한 이해 확산.

- 하천지킴이, 지역 연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유역 거버넌스 구축 기반

지역 및 전국 연대

[전국환경운동연합]

1. 전국대의원대회/ 년 1회 (2월)
2. 전국 대표자회의/ 년 2회(2월, 8월)
3. 전국 국처장단회의. 총처장단 회의 /격월
4. 광주전남 사무국 회의/ 분기별 1회, 필요시 소집
5. 전국 환경연합 위원회(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생명의 강 위원회, 원전특위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 매월
2. 지역 현안 대응
 - 차기대선 및 지방선거 관련 정책제안 준비 지역사회 중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 5.18기념행사, 민관거버넌스(협치) 등 주요 사업 연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등
2. 거버넌스 실천사업 분과별 참여
3. 기타 협력 사업 진행(푸른광주의 날 등)

[지구의 날 기념 행사위원회]

. 주관 : 2022 제52주년 지구의 날 광주위원회

[사무국 : 광주환경운동연합]

. 내용 : 지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한 환경을 주제로 한 환경축제 개최. 지구의 날 주
간동안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 시민 홍보활동. 연대, 협력 사업

[의제별 연대활동]

1.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사무국
2.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
3. 무등산난개발저지시민연대 / 사무국
4.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집행위원
5.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운영위원 참여
6. 빛고을하천네트워크 / 2022 광주 강의 날 대회 준비위원회 참여
7. 기타

[전국현안 대응]

- 대선 정책 대응, 토건사업 대응, 국립공원 보전 및 국토난개발 대응
- 탈핵(핵폐기물, 발전소 안전문제), 유해화학물질, 4대강재자연화 등

2022년 예산(안)

2022년 이월금 산정

2022년 (사)광주환경운동합 회계 통합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광주환경운동연합	143,006,142	2021.12.31. 결산금액
(사)광주환경운동연합	51,346,475	
통합 이월금	194,352,610 (원단위 절사)	별도계정(장기발전기금) 159,637,989원 일반회계 34,714,628원

2022년 예산(안)

(단위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22 예산(안)	항목		2022 예산(안)				
이월금(36%)		194,352,610 ¹⁾							
회비	자동이체 등	165,600,000	경상비	통신. 관리	12,300,000				
	평생회원	6,0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3,000,000				
	특별(임원)회비	4,800,000		비품 구입비	2,000,000				
	소계(32.7%)	176,400,000		후생복지	18,519,000				
				보험료	14,103,000				
				인건비	56,538,000				
후원금	후원/기부금	60,000,000	계(19.7%)		106,460,000				
	회보광고	1,000,000							
	소계(11.3%)	61,000,00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02,000,000	중점사업	환경교육	13,000,000				
	교육 참가비	5,000,000		탈핵, 기후운동	49,580,000				
	소계(19.8%)	107,000,000		생태도시	14,400,000				
				광주천, 영산강	44,000,000				
				자원순환	66,460,000				
기타	자료대여, 판매 등	500,000	소계(34.7%)		187,440,000				
	고용지원금/기타수입	747,390							
	소계(0.2%)	1,247,390							
1) 장기발전기금 159,637,989원 포함			사업비	홍보사업	정기간행(소식지, 월간지)	15,720,000			
					홍보관리비	12,000,000			
					소계(5.1%)	27,720,000			
						조직및참여사업	회원모임 지원	2,4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28,132,000	
							정기총회 등 회의	3,000,000	
							후원의 날	3,000,000	
							소계(6.8%)	36,532,000	
						연대	중앙/지역연대	10,800,000	
							소계(2.0%)	10,800,000	
						계(48.6%)		262,492,000	
						기타	기타	기타지출	1,410,010
								장기발전기금	169,637,990
			계(31.7%)	171,048,000					
수입		345,647,390	지출계		540,000,000				
수입계		540,000,000							

2021년 결산 대비 2022년 예산(안) 비교

(단위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1'결산	22'예산(안)	항목	21'결산	22'예산(안)		
이월금	59,472,981	194,352,610					
회비	자동이체	152,670,000	경상비	공과금(통신, 관리비 등)	9,916,130	12,300,000	
	평생회원	9,0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3,058,590	3,000,000	
	특별(임원)회비	4,150,000		비품 구입비	2,347,080	2,000,000	
	소계	165,820,000		후생복지	18,622,845	18,519,000	
미인건	후원의 밤 등 기부금	52,748,712	보험료	13,593,705	14,103,000		
	회보광고	0	인건비	145,600,600	56,538,000		
	소계	52,748,712	경상비소계	193,138,950	106,460,00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46,680,700	중점사업	환경교육	25,407,291	13,000,000	
	교육참가비	561,000		탈핵, 기후보호운동	5,065,500	49,580,000	
	소계	147,241,700		생태도시, 생활안전	1,290,690	14,400,000	
기타	자료대여, 판매 등	200,000		광주천, 영산강 살리기	53,573,630	44,000,000	
	고용지원금/기타수입	184,119,274 ¹	자원순환	61,545,990	66,460,000		
	소계	184,319,274	소계	146,883,101	187,440,000		
1) 장기발전기금 159,637,989원 포함			사업비	정기간행(소식지, 월간지)	14,944,050	15,720,000	
				홍보사업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8,408,160	12,000,000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3,308,410	
					소계	26,660,620	27,720,000
			조직및참여	회원모임지원	2,000,000	2,4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16,846,233	28,132,000	
				정기총회 등 회의	1,980,470	3,000,000	
				후원의 날	2,308,930	3,000,000	
			소계	23,135,633	36,532,000		
			연대	중앙/지역연대	10,614,510	10,800,000	
소계	10,614,510	10,800,000					
			사업비 소계	207,293,864	262,492,000		
기타	기타지출	4,817,236	1,410,010				
	장기발전기금	10,000,000	169,637,990				
	기타소계	14,817,236	171,048,000				
수입	550,129,686	345,647,390	당해 지출계	415,250,050	540,000,000		
			차기이월금	194,352,610			
수입계	609,602,667	540,000,000	총계	609,602,667			

2022년 예산 세부(안)

□ 수입(안)

(단위 원)

관	항 목	금 액	산출 내역
전년도	이월금	194,352,610	36%
회 비	회원	18,000,000	5,000×300인×12개월
		48,000,000	10,000×400인×12개월
		54,000,000	15,000×300인×12개월
		26,400,000	20,000×110×12개월
	가족회원	12,000,000	20,000×50명×12개월
	단체·기업 회원	7,200,000	50,000×12곳×12개월
	평생회원	6,000,000	2,000,000×3명
	특별/임원회비	4,800,000	20,000×20명×12개월
	소 계	176,400,000	32.7%
후원금	후원·기부금	60,000,000	후원행사 및 기부금 등
	회보광고 등	1,000,000	500,000× 2회
	소 계	61,000,000	11.3%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02,000,000	5,000,000×4개(기후에너지)
			10,000,000×3개(하천살리기)
			10,000,000×4개(자원순환)
			6,000,000×2개(생태도시, 생활안전)
	교육참가비	5,000,000	500,000×10회
	소 계	107,000,000	19.8%
기타	자료판매 등 대여	500,000	자료 대여 및 판매
	일자리안전자금	747,390	일자리안전자금 등
	소 계	1,247,390	0.2%
	수입계	345,647,390	
	수입총액	540,000,000	100%

□ 지출 (안) - 경상비

(단위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경 상 비	운 영 비	통신, 관리	12,300,000	전화, 통신비150,000×12개월
				건물관리비 675,000×12월
				회계 기장 수수료 200,000×12개월
		소모품 및 수선비	3,000,000	250,000×12월
		비품구입비	2,000,000	사무 비품
		후생복지	18,519,000	중식비8,000×5인×15일×12개월 =7,200,000 퇴직적립금(기본급 100%) 11,319,000
		4대보험	14,103,000	4대보험(인건비 총액의 약 8.9%)
	운영비 계	49,922,000	9.2%	
	인 건 비	활동가 1	33,900,000	2,825,000*12개월(사무처장)
		상여금	22,638,000	기본급 200%(사업담당자 포함 5인)
		인건비 계	56,538,000	10.5%
	경상비 합계		106,460,000	(19.7%)

□ 지출 (안)- 사업비

(단위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사 업 비	중점 및 연속 사업	환경교육	13,000,000	어린이, 시민대상 일반1,000,000×10회 환경교육센터 등 조직강화 3,000,000	
		탈핵, 기후보 호운동	49,580,000	탈핵 5,000,000 기후에너지15,000,000 사업담당 인건비 2,465,000×12개월(국장)	
		생태도시, 생 활안전	14,400,000	생활안전, 대기질 개선7,400,000 생태도시 7,000,000	
		광주천, 영산 강살리기	44,000,000	영산강섬진강 수질보전 10,000,000 물순환 지천 살리기 10,000,000 사업운영 인건비 2,000,000×12개월(활동가)	
		자원순환	66,460,000	자원순환 도시 30,000,000×1식 일회용품줄이기 5,000,000×2식 사업운영 인건비 2,205,000×12개월(팀장)	
		소 계	187,440,000	34.7%	
	홍보 사업	정기간행물	15,720,000	월간지(합.길)1,800×450부×12개월 회보 발간 1,000,000×6회(격월)	
		홍보관리비	12,000,000	우편 발송 700,000×12월=8,400,000 서버 이용 및 관리, 문자 홍보 등 300,000×12개월	
		소계	27,720,000	5.1%	
	조직 및 참여 사업	회원모임지원	2,400,000	회원모임지원 400,000×6식=2,400,000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28,132,000	회원관리프로그램 70,000*12=840,000 .회원(시민)참여프로그램1,000,000×4식 사업 운영 인건비 1,941,000×12개월(활동가)	
		총회 등	3,000,000	총회 등 회의 3,000,000	
		후원의날	3,000,000	후원의 날 3,000,000	
		소 계	36,532,000	6.8%	
	연대	지역/전국 연대	10,800,000	지역연대 400,000×12개월=4,800,000 전국연대 500,000×12개월=6,000,000	
		소 계	10,800,000	2.0%	
	사업비 합계			262,492,000	(48.6%)
	기타	기타지출	1,410,010		
		장기발전기금	169,637,990	2021년 장기발전기금 이관, 2022년 10,000,000 적립	
		소계	171,048,000	31.7%	
(사업비+기타) 계			433,540,000	(80.3%)	
지출총액(경상비+사업비+기타)			540,000,000	100%	

부 록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정관
- 회원생활수칙

성명서/ 논평/ 기자회견문

[성명서] 한빛5호기 부실시공사와 계약유지하고 신규 계약한 한수원 규탄 성명서/ 1월 10일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 1월 11일

[성명서]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 1월 19일

[기자회견문]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 1월 20일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 2월 7일

[성명서]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현재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는가? 선언을 넘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3월 11일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행동해서 바꾸자)’ 도전자 모집 / 3월 16일

[보도자료]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 3월 22일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4월 6일

[성명서] 나주 SRF 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한다. / 4월 15일

[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여야 한다. / 5월 21일

[보도자료] 물하천 시민단체, ‘영산강 섬진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개최 / 5월 25일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맑은 광주천을! “광주천 정화활동 시민 참가자 모집” / 6월 14일

[보도자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마을 주민들이 도랑 지킴이로 나선다.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6월 22일

[성명서] 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광주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 6월 23일

[성명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사업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7월 13일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동구, 시민의 힘으로 탄소중립 2045,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실험’ 추진. 산수 2동 주민 대상으로 생활 실험단 참가자 모집 중 / 7월 27일

[성명서]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 9월 7일

[성명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 회의에 따른 성명 / 9월 29일

[성명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하라 / 10월 7일

[보도자료]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 10월 17일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남구 2030 신재생에너지 50% 목표에 따른 지역 특화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보도자료] 광주 동구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험 - 쓰레기 감량 효과 있다! / 10월 22일

[성명서]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휘방말고 취양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 11월 18일

[보도자료]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 10월에도 감량성과 이어가 / 11월 19일

[기자회견] 포스코 삼척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 기자회견 / 11월 23일

[성명서] 도심의 가로수, 언제까지 함부로 베어낼 건가? / 11월 28일

[보도자료] 내지천 도랑이 주민참여 민관협력으로 건강한 물길로 되살아 나! - 12월 10일

[성명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 12월 15일

[보도자료] 광주환경연합,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 제안 / 12월 20일

[보도자료] 2021년 광주, 전남 환경 10대 뉴스 / 12월 24일

[성명서] 고준위핵폐기물 기본계획 심의를 중단하라! / 12월 24일

[성명서]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가 온당한가? -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 구상을 철회하라! / 12월 29일

[성명서] 한빛5호기 부실시공사와 계약유지하고 신규 계약한 한수원 규탄 성명서

한빛 5호기 중대과실 시공사와 계약 유지하고, 추가 계약한 한수원을 규탄 한다!

-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라!
- 한수원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하라!

영광 한빛 핵발전소 6호기가 1월 7일, 제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 18개월을 주기로 발전을 중단하고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을 하는 활동이다. 통상 계획정비기간 동안 새로운 핵연료봉 장전, 발전설비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이루어진다. 한빛 6호기도 계획된 정비를 거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를 보수용접하는 과정에서 3개의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두산중공업을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부실 용접 사실을 시행사인 한수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 조작 의혹까지 있어, 두산중공업의 잘못으로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수원은 이번 6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진행될 원자로 헤드 관통부 용접시공을 다시 두산중공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한빛 5·6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불량 확인과 규제 기관 및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과 한빛 6호기 플라크레인 정비용역을 체결하였고,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부 개선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공사, 납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금 몰수, 구상권 청구, 재입찰 제약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앞서 문제로 두산중공업을 고소까지 진행한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이러한 행위는커녕, 추가 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수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은 공익제보에 의해 알려져 조사가 시작되었다. 만약 제보가 없었더라면, 원자로 헤드의 부실용접 사항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상태로 한빛 5호기가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제보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관리감독, 규제 전반의 실종을 보여주는 총체적 난국 사형이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언제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하고 관행적이며 폐쇄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전문성·합리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도덕성에 기반한 운영·관리감독·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한수원의 입장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 다시 같은 공사를 맡기는 일은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수원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저도 모자란 한빛6호기 판국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시공사에게 똑같은 공사를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과 일체의 한빛 5·6호기 설비개선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직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두산중공업과의 계약을 이행한다면, 한수원에게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배임 행위를 물어 반드시 법적인 책임도 지게 할 것이다. 한수원은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21. 1. 11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주)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

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 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2021.1.11

[성명서]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 우리 강 자연성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할 과제
- 영산강 보해체가 주춤거린다면,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공염불
- 환경부는 막혀 있는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하고 보 해체를 즉각 추진하라!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2년 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제시안대로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년여의 시간이 국민여론, 유역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 숙의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행은 그 만큼 지체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공된 보로 물길이 막히고 거대한 저수지가 된 영산강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공식화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해체 시기를 장기적 안목,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부연이 있어 자칫 보해체를 지체시키는 핑계거리가 될까 우려된다. 해체 결정과정에 여론 조사, 물이용 대책 방안 마련 등 이미 검토 과정이 있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이·치수 및 수질·수생태, 경제성 등 제반 사항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던 만큼 지역여건이라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 해체와 강을 살리는 후속사업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영산강이 제대로 살아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막힌 물길을 여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승촌보 상시개방과 죽산보 해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보해체,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본류와 지류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 시행이 지체된다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추진하라!

현재 영산강 보 개방은 제대로 된 개방이 아니다. 겨우 수위를 2m 낮추어 유지하는 것으로는 물의 흐름이 회복되지 않는다. 당장 수문을 열어라!

승촌보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마련하라!

2021. 1. 19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기자회견문]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의회는 도시 난개발을 막는 조례 시행을 늦추지 마라!

-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 달 유예하려는 시의회의 의도는 무엇인가?
- 고층 아파트 규제, 지금도 늦었다. 조례 개정되어도 공포시기 포함하면 두 달 유예
-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
-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한 달 유예하는 부칙을 삭제하라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건이 2월 8일(월)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주목되는 개정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9조와 제72조 사항이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범위에 표고 100m 이상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예외없이 불가하도록 한점, 상업지역에서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의 용적률을 400% 이내로 하여 이전보다 제한한 점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개정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시행 시기를 한 달 유예 한 것이다. 실지 공포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의 기간을 유예 시키는 셈이다.

그간 도시 외곽 산지형 자연녹지 지역에서 마저 공동주택사업이 우후죽순 이루어져 왔다. 도심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등 이름으로 포장한 사실상 주택사업이 고밀 고층 형태로 추진되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표고 100m이상의 토지는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을 두어 실지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무등산, 어등산 자락 등 표고 100m이상의 입지에도 공동주택 단지가 적지 않게 들어서 도시난개발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과 경관 훼손, 교통문제 유발, 주거지에 부적합한 입지에 따른 후속 공공 행정비용 초래 등 도시환경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및 관리 규제의 구멍, 사업자의 사업성이 우선 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나마 조례 개정을 통해 표고 100m이상에서 공동주택 사업은 불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도심 고층아파트로 인한 도시 난개발 문제 지적은 한두해가 아니다.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용적률에 따른 허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도심의 고층 주택단지 사업을 계속 허용해 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건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도 40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그간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지 상업기능이 아닌 주거로 활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400% 이내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주거지와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용적률이다.

부족하지만 행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마련된 안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 효력 시행을 공포 후 한달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조례개정안이 2월 8일(월) 오전10시 본회의외 상정될 예정이다.

표고 100m 이상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 400% 제한 시행을 한달 유예하려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시의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포 시기까지 포함하면 약 두 달을 유예 시키는 꼴이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건축 . 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인가? 도시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 시기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 개정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하도록 유예시키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통과 된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저 유예시킨 책임을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21.2.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성명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날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현재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었는가? 선언을 넘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은(2021.3.11) 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10년이 지난 일본의 상황은 왜 우리 사회가 핵발전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수습은 3호기의 냉각수조에 있는 핵연료와 핵연료폐기물을 10년만인 올 3월에 수습을 끝냈을 뿐, 수소 폭발한 나머지 발전소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각하게 녹아내린 격납용기의 처리는 높은 방사능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 보고서에 의하면 '제염특별구역'의 85%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잎 시료에서는 체내로 들어가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이 검출되었고, 고독성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앞으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124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이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 일본과는 다른,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 동안 핵발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탈핵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만 폐로를 결정하고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을 뿐, 신고리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고 있어, '탈핵정부'로 비판받는 것이 무색하게,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였던 신한울3,4호

기는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하여, 사실상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계수명이 다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감사원은 핵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정책은 더 이상 탈핵정책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후속대책 일환’으로 핵발전소에 설치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는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고,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막을 파손하여 삼중수소와 여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삼중수소 유출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즉 안전 대책들이 ‘엉터리’, ‘조작’, ‘은폐’로 얼룩진 최악의 대책임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광핵발전소도 안전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핵발전소 중대사고의 최후의 보루인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 수백개의 구멍과 1.5미터 깊이의 구멍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사시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를 불량재료로 용접 문제 등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인 고준위핵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위험물질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40년이 넘도록 임시보관해 오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그 고통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겨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듯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꾸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 보관하는 편법만을 추구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삭제된 엉터리 공론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한 공론화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10년동안, 국내 핵발전소는 역대 정부들이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안전을 실현해야 하고,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작태와 싸워 노후 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의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폐쇄하라 핵발전소!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구멍 송송, 부실시공 한빛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2021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100일 환경챌린지 도전자 모집

-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 프로젝트 개설
- 오는 3월 21일까지 도전자 모집, 우수 활동가에게 제로웨이스트 키트 증정
- 100일 동안 “1일 1환경실천”으로 환경보호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기대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은 오는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100일 동안 하루 1번 인증하며, 도전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 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0명을 모집하며, 웹사이트 (<http://project100.kakao.com/project/10826>)나 프로젝트100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오는 3월 21일(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전자들은 3월 22일부터 100일간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통하여 환경실천활동을 인증하게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5월 중 행해바 도전자들을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오프라인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실천활동으로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거절하기 ▲수도꼭지 방향,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채식하기 등 신청 페이지에서 40여개의 실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을 위한 실천은 어떠한 것이든 가능하다. 도전자는 행해바 프로젝트 페이지에 환경 보호 활동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며, 우수 도전자에게는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증정한다.

프로젝트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천보증금 1만원을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실천한 정도에 따라 보증금은 환급되며, 100일 도전에 성공하면 전액 환급된다. 성공하지 못하면 인증하지 않은 날짜만큼의 금액이 기부된다.

[보도자료]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으로 갑니다.

-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으로 갑니다.
-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전남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영산강 상류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50여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죽산보에서는 ‘죽산보를 조속히 해체!’ 하굿둑에서는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막힌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상류 댐과 하굿둑이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호소로 전략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월에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시행은 보이지 않는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와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우리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Valuing Water’ 로 우리나라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로 재풀이 하였다. 지금과 미래를 위한 가치가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현장 퍼포먼스는 이를 촉구하는 취지이다.

[성명서]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은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

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

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나주SRF 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한다.

- 쓰레기 처리시설 갈등은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반의 문제로 근본적인 감량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갈등은 반복될 것.
- 매립장 조기포화, 직매립 금지 등 광주 쓰레기 문제 위기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쓰레기 감량과 실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기물 정책에 집중해야.
- 나주SRF 가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 해소, 안전성, 주민감독권 보장 등 주민 건강성,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해.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하여, 단순 소각 대신 냉·난방 에너지, 전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초기 협의 후 단체장 변경, 혁신도시 주민 입주로 인한 여건 변화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환경·건강상 문제와 무엇보다 일 444톤 용량 중 80% 이상이 광주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해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3년이 넘도록 광주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 전량 매립되어, 매립장 수명단축을 초래하면서 2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하거나 전처리 후 잔재물만 매립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주)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연료공급 계약으로 다른 처리방안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초기 SRF 처리시설 결정에서부터 현재 갈등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쓰레기 자원화 정책, 국비에 의존하는 처리시설 중심의 폐기물 정책, 주민 안전과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나주시와 정치인들이 만든 총체적 문제다.

2019년 감사원이 발표한 ‘폐기물 관리 재활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고형연료화 사업 장려 정책으로 인해 SRF 사용량은 꾸준히 늘었고, 관련 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했다. 하지만 SRF가 쓰레기가 아닌 연료라는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고 여러 지역에서 주민반대에 부딪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때마침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자 SRF시설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치부해 결국 2019년 10월,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결국 SRF발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SRF연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고, 기존 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SRF는 첨예한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쓰레기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3월 29일(월)~4월 5일(월), 8일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 쓰레기 처리와 나주 SRF에 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인식조사는 700명의 광주시민이 응답했다. 다만, 성별, 연령별 표본 추출 과정이 없는 온라인조사 특성상 대표성,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사결과 인지여부 항목에 대해서는 SRF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62.7%, 나주 SRF발전소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8%, 나주주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5.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광주시민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동의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동의한다’ 50.2%, ‘반대한다’ 37.4%, ‘그저그렇다’ 12.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는 ‘동의한다’ 46.4%, ‘반대한다’ 46%, ‘그저그렇다’ 7.5%로 찬·반 응답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주 SRF발전소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54%, ‘정상가동’이 27.6%,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15.7% 순으로 나타났다.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 대상으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42.1%, '정상가동'이 34.9%,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 대책으로는 '기업규제 등 생산에서부터 원천쓰레기 감량' 36%, '교육·홍보(시민 인식 확대)' 21.7%, '연료화 등 처리기술 강화' 16.9%, '생분해 등 재활용기술 개발' 15%, '수거선별 시설개선 및 인력보강' 10.4% 순으로 나타나 강력한 규제로 원천쓰레기를 감량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시민인식을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과 별개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실천과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쓰레기를 소각, 매립하기 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원천감량하고, 실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 해야한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본은 제조단계에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제품은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하고, 불필요한 포장과 1회용품 사용은 당장 금지해야 한다. 포장재 없는 제품 판매점이 마을마다 확대되고, 다회용기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민 홍보·교육 등 생활 속 자원순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열악한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도 필요하다.

나주 SRF 발전소의 가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위해성 해소, 안전성 확보, 주민감독권 보장 등 주민 건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되는 SRF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농도를 공개하고,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폐기물 감량과 제로화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쓰레기 처리시설 갈등은 처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에서 처리까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할 때마다 같은 지역갈등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를 선언했다. 2030년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연료화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나주 SRF발전소 갈등의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되더라도 SRF 발전소의 수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광주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광주광역시 매립장은 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된 상태이다. 경험했듯 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마련에는 부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안전성 확보까지 많은 검토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광주시는 나주 SRF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발생 후에 처리하는 정책에 앞서, 쓰레기 발생을 막는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4. 15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

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 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5. 21

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물하천 시민단체, ‘영산강 섬진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개최

- 물하천 시민단체, ‘영산강 섬진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 열어
- 정책 간담회 행사 후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발대식을 통해 물하천 살리기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참여형 정책 발굴 및 견인 의지 표명

5월 25일(화)오후 2시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1층 강당에서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 물하천 시민단체, 풀뿌리 시민모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영산강 섬진강 유역권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과거 고속 성장의 시대에 수자원 확보, 지역개발 등을 위해 하천을 개발한 결과로 하천 유량 감소, 종횡 단절, 생태건강성이 악화 되었고 강 고유의 특성과 문화, 다양성도 악화 되었다. 현재 강의 생태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풍요로움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연성 회복

정책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 및 유역의 자연성 회복 방안 연구가 수행중이다. 이·치수, 생태환경, 지역공동체를 조화롭게 고려한 자연성 회복 방향, 사업 우선 순위 등이 연구중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이올래 박사가 발표를 하고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홍기혁 광주천지킴이, 이찬호 수곡천지킴이, 이만실 나주생태환경포럼 회장, 장여환 화순하천네트워크 대표, 백성호 섬진강네트워크 대표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한다. 좌장은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전 대표가 맡는다.

간담회 후 오후 4시에 같은 장소에서 광주지역 물하천단체들의 협의체인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이 개최된다. 참여단체들은 하천네트워크 출범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물하천 살리기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빛고을하천네트 참여단체는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빛가람지킴이, 숲해설가협회, 숲살림협회, 광주천·황룡강·풍영정천·수곡천·소태천 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어울림봉사회 등 20여 단체이다.

2021.05.25

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1. 6. 22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마을 주민들이 도랑 지킴이로 나선다.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광주천 상류 지류인 내지천 살리기 주민 활동이 본격화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은 6월 22일, 24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주민센터에서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22일(화) 오후 2시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명예교수의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활동의 의의’ 강의를 시작으로 시민 참여형 하천모니터링 방법론, 비점오염원 이해와 개선 활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내지천 지킴이로 위촉될 동구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15명은 교육 이후 하천 정화 활동, 하천 생태조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대상 하천생태 교육 활동에도 참여한다.

내지천지킴이 교육에 참여한 내지마을 김성중씨는 “어릴적 내지천에서 물놀이하고 물고기 잡던 추억이 있다. 우리 마을의 소중한 하천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내지천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내지천지킴이 양성은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환경운동연합, 한국수자원공사, 내지마을 및 내남동 자치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이다.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수질 조사 사업 등도 병행된다.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내지천 생태계 회복과 거버넌스형 하천 살리기, 주민 관리형 하천 보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명서]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광주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학동 4구역에서 수집한 7개 시료 100%에서 석면 검출(백석면 12~14%)

지자체는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광주 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과정 전수조사해야

노동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 조사하고, 환경부는 재건축·재개발 석면철거현장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수사당국은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건축자재로 활용된 석면이 재건축·재개발로 일시에 많은 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석면 노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

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석면철거의 불법하도급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백석면이 12~14% 검출되었다.

석면 해체 및 제거과정은 1군 발암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으로 적법한 처리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작업이다. 이전에도 2005년 원촌중학교, 2008~2011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등 재건축·재개발현장의 석면철거 부실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지만, 지자체와 노동부의 감독 의지와 기능이 약해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구청과 노동부에 신고된 학동4구역의 석면 해체 및 처리면적은 총 2만8098.36㎡이며, 석면해체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비용 22억이 3억까지 낮아졌으며,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석면해체 과정은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업신고계획서, 현장실사, 감리완료보고서, 측정결과 보고서,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의 철저한 기록과 신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교육 이수와 특수건강검진을 거친 작업자, 비산농도측정자, 자격을 갖춘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하고, 감리는 매일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석면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와 노동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 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의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석면해체 작업 외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등 모든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학동4구역 철거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철거 작업장을 점검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특별점검반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석면철거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불법, 탈법적인 재개발, 재건축 및 석면철거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 6.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사업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 부동산 투기, 건설업 수익 도구가 되어버린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행정 당국의 역할 찾아야
- 특히 북동구역,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면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해당지역 주민 동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 경관위 심의 절차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동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면 개발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 심화, 도시난개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북동구역에 대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들에게 사전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인 북동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진척이 없다가 2019년부터 북동구역에서 일명 쪼개기 토지, 건물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북동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북구는 개발사업 추진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회신이 50%에 머물고, 원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24개동, 업무빌딩 2개동 건축 계획이 상위 도시계획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교통난 경관문제를 야기한다. 추진위원회 입

안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의 적정성,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 낙후성, 슬럼화를 사업 추진의 필요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도시의 역사성이나 장소성,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상은 부실하다. 실제 현 북동구역의 상업 기능, 업태나 업종 현황과 유지 및 개선 방향, 도시 활성화 등의 검토는 없다. 오로지 사업성, 수익성을 위한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당사자인 상업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사업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현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정을 요구하여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는 북구, 광주시도 책임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동구역은 금남로에 인접한 원도심으로 대표적 중심사업지역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중앙대생활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도새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층 고밀 주택 건설 사업장이 아닌, 문화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누문구역 갈등 등이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전면개발방식의 사업은 사람과 도시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건설업계의 수익 도구로 전략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능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도시 기능 활성화,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이다.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시와 북구 등 자치구의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당장 북동구역 경관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1. 7. 13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21. 7. 27

광주광역시 동구, 시민의 힘으로 탄소중립 2045,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실험’ 추진 산수2동 주민 대상으로 생활실험단 참가자 모집 중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 생활실험’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8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생활 실험단’에 참여할 산수2동 1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을 운영하는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설명에 따르면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은 참여자 스스로 3개월 동안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측정, 기록하는 리빙랩(생활실험)으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 측정 및 기록하고 가정과 생활에서 실험자인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보다 더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안을 공유해가는 과정이다.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순환은 늘리고’ 갈수록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 활동 일환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및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환경 갈등 해결책으로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민관협력,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쓰레기 감량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생활실험이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행정 주도에서 주민 참여형 청소행정 혁신과 민관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성과가 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채연 소장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제고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리배출 요령이 시민들의 실천과정에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생활실험에 동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실험단 참여는 동구 산수2동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쓰레기발생량을 측정할 저울, 분리배출함, 도서 등 관련 도구와 자료,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 마감은 7월 30일이다.

[성명서]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공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하면서, 수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도심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수원지로 인해 하류 석곡천 등이 영향을 받았고, 하류 주민들은 4수원지 용수를 본래 하천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천 하천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일환에서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 환경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2021. 9. 7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빛가람지킴이,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숲살림협회

[성명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 회의에 따른 성명

- 현 북동구역 39층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안은 북동구역 역사성, 장소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계획 수립 미비
- 이번 경관위원회는 북동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절차로써 경관 심의가 매우 중요
- 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음.
- 북동사업 안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본연의 목적, 광주 도시 경관 기준과 지침, 광주 도시건축 선언이 지향하는 방향에도 부합한지 분명하게 평가해야

9월 29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관 심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선행되는 절차이다. 북동구역은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남로 인근 중심상업지역인 북동구역에서 구상되고 있는 재개발 계획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 중심이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거나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 하는 목적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경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북동구역에서 39층 고층 아파트 등 24개동을 계획하고 있다.

경관위원회는 사전 서류 자문을 통해 북동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장소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복 개발방식을 반영하고 경관보호 및 주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 검토 필요성을

주문한바 있다. 예정구역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유물, 건축자산, 근대건축물 등에 대한 구체적 보존방안이 반영된 경관계획 검토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본 회의에 상정될 안은 사실상 전면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경관 심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북동구역의 문제점은 상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주거형 정비사업 계획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업 지역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 보다 월등히 높은 밀도의 개발이 가능하며 도심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용도용적제로 주거부문 용적률 400%까지 제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용적률이며 고층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마저 사실상 고층아파트 건설 목적 사업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그간 사업 수익성만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고 공동체 파괴, 주민 갈등 문제를 키웠다. 경관 훼손, 교통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공동체 회복과 보전, 생태환경 개선,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목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광주시와 북구 등 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선언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당장 전면개발 방식에 따른 북동구역 고층아파트 건설 중심의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북동구역의 전면 개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경관 심의는 중단 되어야 한다.

2021. 9. 29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하라!

- 특정 성별 집중, 4개 분야 편중, 민간업체 참여자 비율 높아,
- 도시공원의 새로운 화두를 제언하고 공익성, 신뢰성, 다양성이 담보되는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 위원회 문제 제기때만 혁신안 마련, 광주시 위원회 혁신의 길 멀어...
- 광주시 법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9월, 2023년 9월 14일까지 2년의 임기를 갖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광주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 계획 심의와 공원녹지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구성 조례)」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담지 못한 채 특정분야에 편중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제기된 문제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광주시의 위원회 혁신안이 진정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서 특정 성별이 60%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청년위원이 1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여성위원이 단 2명으로 남성위원이 86%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위원은 아예 없다.

전체 위원 중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참여가 과도한 점도 문제다. 민간업체 관계자가 6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42%에 해당한다.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높은 비율은 심의와 자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6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심의에서 공원축소와 아파트 진입도로의 공원 결정에 대해 공원위원회는 표결 결과, 수용 7명, 불수용 6명으로 공원 면적 축소를 공원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결과를 만든 바 있다.

또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분야가 조경, 도시공학, 도시경관, 도시생태 4개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 공원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도시공원관리, 이용을 위한 문화분야 등이 포함된 사례처럼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기 위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원칙을 지키고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도시공원위원회의 활동기간인 2023년까지 민간공원 9곳과 재정공원 15곳, 총 약 1100만㎡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 현재 조성된 공원의 배가 넘는 면적이다, 앞으로 2년, 그동안 누려오지 못했던 공원에 대한 이용, 복지와 문화 등을 발굴하고 확장해나가야 할 시기이다. 광주의 도시공원이 사실상 완성되는 시점의 도시공원위원회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화두를 제언하고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법정위원회는 이해관계가 관련된 각종 심의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 권한

과 운영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을 지켜보며, 광주시의 법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안일함과 면피용으로 이용된 혁신안에 다시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재구성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로만 꾸려진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회 위원 선정 등 법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 10. 7 광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1. 10. 17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한·중·일 NGO, 각 정부에 ‘동아시아 탄소중립! 1.5°C 달성’을 위한 이행 촉구

-지난 10월 14일~15일 여수에서 개최된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 한·중·일 NGO들은 동아시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동아시아 정부들이 ‘파리협정과 지구온도 상승 1.5°C 이내 달성’을 위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UNFCCC COP26 (2021년 유엔기후변화회의) 사무국에 전달 예정

‘2021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이하 동아시아기후포럼)이 지난 10월 14일(목)~15일(금) 이틀 동안 ‘1.5°C 동아시아 탄소중립과 10년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한국간사단체:광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진행된 동아시아기후포럼은 한·중·일 30여 NGO단체와 기관, 100여명의 시민활동가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주제 섹션4개와 1개의 특별섹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섹션1은 ‘한·중·일 탄소중립 선언 1년 평가’, 섹션2는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섹션3은 ‘기후교육’, 섹션4는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별섹션은 ‘동아시아 청소년기후행동’이었습니다.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기후위기 정책 및 동향, NGO의 활동 성과 등을 공유하며 동아시아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2021년 환경활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인 키미코 히라타(CAN-japan. 15개 NGO연합체) 대표는 기초강연에서 주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 건설의 문제를 알리고 지역주민과 NGO, 해외단체들과의 연대활동 전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위한 법적 소송과 석

탄화력의 금융지원을 바꾸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현재 50기의 화력발전소 계획중에 17기를 백지화 시킨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별섹션에서 박정윤(전대사대부고1학년)양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사함을 여러 자료와 교육을 통해 인지하며, 때로는 같은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 나갔고, 캠페인, 거리행진, 결석시위를 통해 정부와 어른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행동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아시아기후포럼 마지막날에는 “동아시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동아시아 정부들이 파리협정과 1.5°C 온난화 목표에 부합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10년의 기후행동계획”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한·중·일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동아시아 탄소중립지대를 위해 교육과 연대, 협력에 나서줄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확고한 기후리더십을 가져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므로, 한·중·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는 민간차원에서 교류와 연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 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UNFCCC COP26 (2021년 유엔기후변화회의) 사무국에 전달 예정입니다.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는 한국, 일본, 중국의 NGO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한·중·일 기후, 에너지문제에 대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에 결성된 순수 NGO들로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입니다.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는 격년으로 ‘동아시아기후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여수시와 함께 제8회 동아시아기후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2021. 10. 25

광주광역시 남구 2030 신재생에너지 50% 목표에 따른 지역 특화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시민환경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광역시 남구가 공동으로 10월 26일(화)오후 2시,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지역 특화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지역 현황 고려 등 다양한 여건 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는 2030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태양광 적용 등 남구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파악하고 실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에너지자립마을, 협동조합, 영농형 연계형, 주민참여형 등을 논의한다.

기본 발표는 ▲광주 남구 2030 그린에너지자립도시 기본계획 ▲남구의 태양광 입지 잠재력 파악과 적용 모델 안 ▲도시 재생에너지 시민인식 조사 결과 이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수원지역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누적 용량 3MW 규모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한다.

이인화 조선대학교 교수,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하여 지역 농민회, 재생에너지 상담사 등이 참여하여 부문별 잠재력에 따른 재생에너지 적용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 한다.

[보도자료]2021. 10. 22

광주 동구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험- 쓰레기 감량 효과 있다!

- 9월 1인 1일 배출량, 8월 보다 12.6% 감량. 일반쓰레기는 27% 감량
- 전체에서 일반쓰레기 비중은 줄고 재활용 비중은 커져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100가구가 참여하는 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 중간 집계 결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하고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생활실험은 8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실험이 시작되었고 11월까지 진행한다. 발생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8월 16일 부터 이다.

쓰레기줄이기 100일 실험은 8월에는 그간 배출해왔던 대로 하고, 9월부터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면서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가정에서의 각 상황별, 쓰레기 성상별 감량을 위한 100가지 실천 방안들을 체크하며 실행 상황을 점검하며 진행하고 있다. 실험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배출할 때 마다 발생량을 저울로 측정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배출량 추이를 점검한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10월에는 재활용품 성상별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추가된다.

이번 10월 중 중간점검으로 8월과 9월 발생 현황을 비교하였다. 실험 첫달인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배출한 양과 9월에 30일간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참여 가구 실 거주 가족수를 고려하여 1인 1일 배출량으로 집계 산출하였다. 8월에는 100가구 중 실험을 포기하거나 기록 오류가 있는 3가구가 집계에서 빠져 총 97가구 288명의 배출량, 9월은 100가구 294명의 배출량이 집계되었다.

8월과 9월 비교를 위해, 1인 1일 발생량으로 따져 보았더니 일반쓰레기는 27%감량, 재활용품 2.7%감량, 음식물쓰레기는 8.1%가 감량되었다. 전체 발생량으로 보면 12.6%가 줄었다.

무게로는 일반쓰레기가 115g에서 84g으로 감소, 재활용품이 112g이 109g으로 감소, 음식물쓰레기는 123g에서 113g으로 감소하였다. 전체량으로는 350g에서 306g으로 감소하였다.

각 부문별로 비교하면, 일반쓰레기 비중이 32.9%에서 27.5%로 줄었고 반면 재활용품은 32%에서 35.7%로 커졌다. 재활용품의 경우 발생량은 줄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재활용 비중을 늘어난 것이다.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일반쓰레기가 줄면서 재활용품 비중이 커진 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자원순환형 모델에 더 가까워진 양상이다.

9월에는 추석명절이 있어서 선물포장에 따른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감량 효과를 보였다. 실험단 참여자들의 실천 내용에 따르면 배달 음식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그릇을 직접 가져가서 담아오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부터 쓰레기 배출이 늘어날 상품은 거르는 방식 등 감량을 위한 여러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선물 받은 것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은 지인들과 나눔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도 발생 무게를 줄이기 위해 말려서 배출하고, 가능한 남겨서 버리는 것을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는 가구가 많았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사용, 주방용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다회용 용기로 야채 보관 등의 실천 사례도 많았다.

실험참여자들 전체가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홍수열 저)’ 라는 책을 읽으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제대로 된 실천과 방법 이해를 비롯하여 재활용선별장 견학 학습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 내 등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제품 생산과 판매시에도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하면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함께 개선해야 하는 등의 시각이 커지는 실험 효과도 보이고 있다. 선물포장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품량에 비해 이중 삼중 과도한 포장으로 인해 배출 쓰레기가 많아진 것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10월과 11월 중순까지의 집계 결과도 이후 평가할 예정이며, 10월까지의 집계 결과를 토대로 11월 하순에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성명서]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훼방말고 취양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 국회 환노위 국힘당 의원이 영산강 취양수장 예산 전액 삭감 요구
-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 외면하는 국힘당
- 국힘당은 취양수시설 예산 삭감 말고 4대강 되살리기에 책임을 다해야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른 농업용수 취양수장 개선 예산마련을 국민의힘당(이하 국힘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 심의가 각 상임위별로 심의중인데,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영산강 등 4대강 취양수장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28억 1,100만원 전체를 삭감하려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고 개선 필요성도 낮다는 이유를 대며 삭감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영산강 보 개방과 하천 수위 하강에 따른 취양수장 개선은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이 취양수장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현재 영산강 개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차질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야기시켜 영산강재자연화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으로도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농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마저 삭감하겠다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책임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것도, 개선 필요성이 낮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올해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가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도 보개방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중이고 특히 농민들과 협의하면서 농업용수 등 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지하수 대책 마련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 해체, 상시개방 결정에서도 용수 공급 대책 마련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현재 시설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국힘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어느 나라 강과 농민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이 막대한 예산낭비, 강생태계 파괴, 사회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과 폐해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겨우 강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는가 싶은데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국힘당이 휘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휘방하지 말고 취약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2021. 11. 1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도자료] 2021. 11. 19

광주 동구 쓰레기 줄이기 100일 생활실험 쓰레기 감량 성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지속

- 10월 100가구 총 발생량, 9월 대비 13.1% 감량
- 실험이 시작된 8월과 비교했을 때 일반쓰레기 31.3% 감량, 재활용품과 음식물 포함 전체에서는 26.9% 감량. 9월에 이어 10월에도 쓰레기 감량 지속
- 원천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적극 실천이 감량 원인. 일시적 감량이 아닌 절대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가는 시민들의 실천 성과는 매우 긍정적.
- 11월 30일에 100일 생활실험 성과 보고대회 개최

광주 동구 산수2동 100가구의 100일간 쓰레기 줄이기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주최하고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이사장 조진상)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험(이하 생활실험)이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생활실험이 8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9월, 10월 발생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 감량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00가구가 각기 배출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작성한 생활 실험 10월 활동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모든 부분에게 감량한 결과를 보였다.

우선 9월 전체 발생량과 10월 것을 비교해 보니 일반쓰레기는 3.0% 감량, 재활용품과 음식물에서 각각 22.6%, 11.4%를 감량했다. 전체로는 13.1%를 감량한 결과이다.

■ 9월과 10월 발생 총량

(단위: kg)

	9월	10월	증감 추이
일반쓰레기	744.1	722.1	- 22.0 -3.0%
재활용품	961.7	744.8	- 216.9 -22.6%
음식물	992.2	878.6	- 113.6 -11.4%
전체	2,698.0	2,345.5	- 352.5 -13.1%

실험이 시작된 8월과 최근 10월 사이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1인 1일 발생량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쓰레기는 31.3%, 재활용품 27.7% 음식물 22.0%를 감량한 셈이었고, 전체로는 26.9%를 줄였다.

■ 1인 1일 발생량기준, 8월(시작달)과 10월(최근달) 비교

(단위: g)

	8월	10월	증감 추이	
			무게	비율

일반쓰레기	115	79	-36	-31.3%
재활용품	112	81	-31	-27.7%
음식물	123	96	-27	-22.0%
전체	350	256	-94	-26.9%

10월 결과가 전달 대비 감량 폭이 9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감량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지역 전체 생활쓰레기 배출 통계와 비교하여도 실험단에 참여한 가구가 매우 양호한 배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생활실험 과정에서 쓰레기 감량과 정확한 분리배출을 적극 실천한 결과로 평가된다.

■1인 1일 발생량 기준 월별 추이(8월~10월)

(단위: g)

	8월	9월	10월
일반쓰레기	115	84	79
재활용품	112	109	81
음식물	123	113	96
전체	350	306	256

감량 성과가 이어진 이유를 실험자들의 실천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크게 세부분으로 정리된다.

먼저 가장 우선 하는 것은,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물품 구매에서부터 실천이다. 사용 후 쓰레기 발생이 많은 제품은 애초 구입 하지 않는 것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라도 무게나 부피가 큰 것은 구입을 피했다.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마트에서 구입한 경우도 포장을 구입처에서 반납하고 알맹이가 가져오는 실천도 있었다. 포장재 배출을 줄이기 위해 리필제품이나 포장이 없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도 많았다.

둘째는 철저한 재활용과 재사용 실천이다. 씻고 말려서 배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스티커 라벨 등을 떼거나 성상이 다른 것은 분리하여 배출하는 실천을 철저히 하였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만 쓰고 배출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재사용 하는 방법도 동원하였다. 비닐도 씻어서 재사용하거나, 음식물을 담은 용기를 미리 가져가 구입하기도 하고 계란 포장 박스는 모아서 가게에 되가져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실천도 있었다. 식용유 등 식자재로 받은 선물이 본인에게 필요가 없는 경우 지인 식당에 나눔을 하는 등으로 감량 성과를 만들었다.

셋째는 음식물쓰레기 등 물기를 짜고 말려서 절대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 정리를 비롯하여, 손질하여 구매하거나 바로바로 꼭 필요량만을 구입하여 버려지는 것을 줄였다. 과일을 껍질째 먹었다는 실천 사례에서부터, 음식물을 말리고 분쇄하여 화단 퇴비로 활용한 경우 등 각 자의 여건에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실천을 하였다.

참여 주민들은 ‘생활실험 과정에서 쓰레기 문제를 새롭게 인식한 점’이 좋았다고 말하고 ‘비록 매년 줄인다는 게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 점이 보람된다.’라고도 언급하였다.

각 가정에서의 쓰레기를 줄이자는 실천이 집 밖으로 확산되는 점도 실험과정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어떤 실험 참여자는 도로가에 혼합되어 배출된 재활용품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라벨 등을 떼고 직접 재분류하여 배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외출 시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필수로 챙기거나 이웃에게도 제대로 된 재활용품 배출 실천을 설파하는 실천 사례도 있었다.

감량에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어떤 참여자의 경우는 손자를 여러 날 보게 되어 기저귀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기도 하였고 계절이 바뀌어 옷장 정리 등을 하면서 전체 배출 무게가 많아진 경우도 있었다. 포장용기가 여러 재질로 된 것은 분리배출이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우리 집 쓰레기를 직접 무게를 재고 성상별로 구분해 보니, 일상에서 간과했던 쓰레기 문제가 직접적으로 와 닿게 되었다’,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이 중요하고 각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실험단의 주문도 많았다. 꽃선물을 받아 보니 포장재가 여러 겹 되어 있는 점도 다시 보이게 되었다고 언급하였고, 공공장소 쓰레기통에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는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쓰레기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동구의 100일간의 생활실험은 11월 20일 까지 이어진다. 11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 대회를 갖는다.

[기자회견문] 기후약당 포스코, 석탄 건설 멈추고 기후위기 책임져라!
광주시민의 30년 노력을 물거품 만들어 버리는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하라!

기후위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신음하고 있다. 인류 역시 점차 변화무쌍해지는 날씨와 기후 재난을 목도하며 뒤늦게나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 역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지구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포스코가 건설하는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는 물론 국내 역시 석탄발전소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석탄 전면 폐지가 공언되고 있다. 그러나 삼척블루파워의 가동 연한이 다하는 시점은 2054년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는 가동이 시작되더라도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쇄를 맞는 결말이 예정되어 있다. 기후위기 시대, 삼척블루파워의 신규 건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모한 발악에 불과하다.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 기업으로 스스로를 홍보해 왔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녹색 분칠을 지속해 온 것이다. 정작 포스코는 연간 8천 5백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내 배출량 1위 기업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는 연간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예정이다. 가동되는 2024년부터 수명이 다하는 2054년까지, 삼척블루파워가 쏟아내는 온실가스의 양만 3억 6천만톤에 이를 것이다.

삼척블루파워가 연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300만톤의 온실가스는 거칠게 계산하더라도 광주광역시와 지난 탄소중립1주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2021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량 약43만톤의 30년 감축량과 같다. 즉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30여년의 노력을 단 한해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광주시민을 기만한 행위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탈석탄, ESG를 고려하며 석탄발전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다. 삼척블루파워 역시 올 6월 1,000억원어치의 회사채 전량 미매각 사태를 맞는 등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삼척블루파워가 준공된다 해도 미래 수익성마저 어둡다. 삼척블루파워의 가동률은 약 85%로 예측되었으나, 정작 작년 석탄발전소의 평균 가

동률은 71%에 그쳤다. 거기에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삼척블루파워의 가동률은 2030년 62%, 2040년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삼척 석탄발전소는 2040년 이전에 수익성을 상실할 것이라 예측된다. 결국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할 삼척 석탄발전소는 국가와 지역의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삼척블루파워는 인근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명사십리'라 불리던 맹방해변은 발전소의 항만 공사로 인해 빠르게 해안이 침식되며 이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해안침식의 원인인 불량 양빈, 불법 준설토 적치장, 침식저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산자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8개월 간 공사가 중단된 전력도 있다. 해변 인근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으며,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60%는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 역시 깊어졌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 주민들은 끝없는 소음과 건강 피해, 재산 피해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눈물 위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 전국동시다발행동을 통해 기후약당 포스코를 규탄하며, 삼척블루파워의 조속한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이윤을 추구하며 무모한 건설을 자행하는 포스코로 인해, 기후위기로 인한 무수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기후위기라는 막대하고 위험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며 그린워싱을 지속하는 포스코의 행보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포스코·삼척 신규석탄 건설 중단 캠페인'을 통해 포스코의 석탄 건설 중단을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기후위기 불러오는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하라
- 하나. 기후약당 포스코는 석탄 건설 중단으로 기후위기 책임져라
-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신규 석탄 퇴출과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하라

2021.11.23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도심의 가로수, 언제까지 함부로 베어낼 건가?

- 월드컵 4강로, 염화로의 수령 30년 넘는 가로수(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 무참히 베어져
- 재건축 승인시 이식으로 허가받고 공사할때는 제거로 변경
- 서구청,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처리 절차 무시, 가로수의 가치 무시한 안이한 행정 보여

염주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주변의 가로수가 11월 27일(토)과 28일(일) 무참히 베어졌다.

월드컵4강로와 염화로의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길은 1987년 도로 개설과 함께 식재된 흉고직경 80cm~20cm, 수고 7~8m에 달하는 메타세콰이어 56주, 염화로 은행나무 62주가 베어진 채 밑동만 남겨졌다. 이 나무들은 30년 넘게 성장하며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늘을 주고, 마을의 풍경을 만들어왔다.

당초 염주주공 재건축사업 승인시에는 도로확장을 위해 메타세콰이어와 은행나무가로수를 이식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재건축조합은 가로수를 모두 제거하고 이팝나무로 교체하겠다고 서구청에 협의를 요청했고 서구청은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재건축조합의 협의 요청과 서구청 허가는 불과 10여일만에 모두 진행되었다.

가로수들이 함부로 베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에도 「가로수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다. 2019년 ‘광주광역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과 가로수의 무분별한 제거를 막기 위해 광주시는 ‘가로수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이 절차에 따르면 가로수를 제거, 교체할때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한 후 실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청은 ‘가로수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로수 제거에 동의했다.

가로수 이식 방안, 도로와 가로수가 공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주민 의견의 청취와 광주시의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절차’로 심의위원회 상정도 하지 않은 채 가로수 제거를 결정했다. 결국 올해 유난히 단풍이 아름다웠던 은행나무도 그늘을 주었던 메타세콰이어도 사라졌다.

언제까지 가로수를 함부로 베어낼 것인가? 오랜 기간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가로수가 함부로 베어지지 않도록 한 가로수 관리절차는 왜 이행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함부로 도심의 가로수가 베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승인시 가로수 이식의 조건이 실행단계에서 제거로 변경되는 상황, 가로수 바꿔심기 업무처리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광주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 광주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다. 허가받을 때는 가로수를 이식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허가 이후에 가로수 제거로 변경 협의하는 사례가 비단 염주주공뿐 인지 광주시 전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로수 조례와 업무지침이 무시되는 자치구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이를 위반한 자치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가로수, 생태도시의 지표가 되는 가로수, 탄소흡수원으로 서 가로수의 가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가로수를 함부로 베는 일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다.

가로수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마을의 경관과 도시의 경관을 만들어나간다. 한쪽에는 탄소중립과 생태도시를 위해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내는 일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21.11.28.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노후화된 영광 한빛1·2호기, 부실 시공한 한빛3·4호 핵발전소를 지금 당장 폐쇄하라.

더 이상 핵발전소의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천만 핵발전소들을 폐쇄하라.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제주 섬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규모였다. 전국에서 느낄 정도였으며, 한반도에서 역대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로 강한 지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국에는 26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두 기가 건설 중이다. 탈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계획 아래에서도, 2083년까지 핵발전소는 가동된다. 앞으로 60년이상 한반도에서 핵발전소는 가동 된다는 것이다.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에는 6기의 원자로가 있다. 한빛1호기는 2025년, 한빛2호기는 2026년에 설계수명이 다한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핵발전소다. 한빛3호, 4호기는 부실시공 핵발전소의 대명사이다.

핵발전소 안전의 마지막 보루라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 곳곳에서 수백개의 공극이 발견되었다. 깊이가 1미터67센티인 벽에 1미터50센티 깊이의 공극도 발견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공극들이 최첨단 기계로 발견한 공극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발전소 콘크리트 건물 전체를 조사할 기술도, 능력도 안되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추정치만 존재한다. 수백개에 이르는 공극은 사람이 벽을 망치로 두드려 공명 소리를 찾아 확인된 결과물이다. 이것이 영광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의 현주소이고, 한국 핵발전소의 실태이다. 우리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이 원자로 내 수조(水槽)에 임시 저장되어 있다. 저장 규모의 77%가 채워졌고, 예정된 포화시점은 2029년이다. 한빛 핵발전소에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한국의 핵발전소는 애초에 건설 당시 ‘지층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핵발전소 건설 조건의 1순위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 우선이지, 안전과 과학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다. 경주에서는 몇해 전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역사적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기록이 남아있다. 초유의 수능연기라는 사태를 일으켰던 지진이 발생한 포항이 지척이다.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경주에는 월성핵발전소와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임시저장시설, 그리고 중·저준위핵폐기물 저장소가 있다.

지진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는 해수면 온도(핵발전소 냉각수 온도)를 상승시키고, 보다 더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핵발전소의 안전

성에 치명적이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4.9의 제주발 지진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 밖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규모 9 이상의 지진과 쓰나미로 사상 초유의 핵발전소 사고가 난 것이 바로 10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였다. 핵발전소의 외부유입 전기가 차단되고 안전 보조 장치들이 모두 기능을 잃어 결국 핵발전소 폭발이라는 재앙을 일으킬지 그 누가 상상 했겠는가? 악몽과 같은 재앙은 이미 10년 전에 실제로 발생했고, 전세계 사람들 모두가 그 대참사를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핵발전소를 안고서는 우리는 더이상 불안해서 살 수 없다. 더 이상 핵발전소의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천만 핵발전소들을 폐쇄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노후된 영광 한빛1·2호기와 부실 시공한 한빛3·4호 핵발전소의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12월 15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영광 한빛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보도자료] 2021. 12. 20

광주환경연합,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대선정책 제안

- 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 광주설치
- 중앙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복개구간 복원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처리 인공습지 조성,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
- 광주공항 이전지, 100만평 광주시민대공원 & 친환경 저밀도 스마트 융복합 도시 조성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광주환경연합)은 12월20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 20대 대선에 제안하는 다섯가지 광주정책’을 발표했다.

다섯가지 정책에는 ①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 지정 ② 중앙공원과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 도시공원지정 ③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복개구간 복원 ④ 영산강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 ⑤ 광주공항 이전적지의 융복합도시 개발이다.

20대 대선을 맞아 정책의 방향성으로 ▷ 탄소중립 성공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신뢰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지역발전을 넘어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 물적 자본과 다양한 세대의 양량강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 ▷ 물적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집중하거나 과다하지 않아야하며, 국가 미래성장 잠재력을 위한 문화·교육·환경생태 자본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준비하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를 위한 다섯가지 정책에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생태도시로 전환을 기조로 하고 있다.

1.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 지정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지정은 국가의 탄소중립목표보다 5년 앞당긴 광주의 목표 실현이 국가의 탄소중립의 성패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광주를 탄소중립시범도시지정하고 국가탄소중립 진흥원 신설과 광주설치, 제로에너지건축시범지구 지정 등을 포함되었다.

2.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지정

도시의 생태회복, 공원 서비스 확장, 환경·역사·문화 보전을 위해 광주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운영한다. 국가도시공원을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각 도시별 특성에 맞는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운영을 위해 국가도시공원관리공단 신설로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인다.

3.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 복개구간 복원

국가하천 광주천 본류 구간의 양동복개구간 복원사업을 통해 광주천과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개선한다. 광주시의 동계천 복원사업과 국가의 양동복개하천 복원은 광주천 본류와 지류의 복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광주천 수질을 개선한다.

4. 영산강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

영산강의 수질을 좌우하는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처리를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상무신도시 등과 인접한 하수처리장을 생태공원화하여 녹지면적 증가, 생태숲확보, 열섬현상에 기

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5. 광주공항 이전적지의 융복합도시 개발

광주공항 이전 적지 250만평의 부지에 100만평 광주시민대공원과 친환경 저밀도 스마트 융복합 도시를 조성한다. 광주군공항 조성시 매립된 하천부지를 광주시에 무상양여하고 이를 수변공원과 습지를 조성해 100만평 시민대공원으로 조성한다. 광주공항 이전적지 개발시, 산업&주거&휴식이 융복합된 저밀도 친환경 도시를 조성한다.

광주환경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선정책발굴위원회(위원장 조진상)을 구성, 탄소중립 광주, 생태도시 광주에 필요한 대선정책 5가지를 선정했다.

조진상대선정책발굴위원회 위원장은 “2045년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과 도시의 숲과 하천의 기후회복력을 높이는 생태도시 정책은 기후위기, 환경위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해 꼭 필요한 대선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 12. 24 2021년 광주, 전남 환경10대뉴스

-올 한해 동안 있었던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추천받아 중요하고 비중있는 뉴스 10가지 선정

-학동4구역 붕괴참사, 여수 국가 산단내 환경안전사고, 광양제철소의 2년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등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2021년 광주·전남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 일어났던 환경 관련 이슈들 중,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거나, 중대한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문제 등 중요하고 비중 있는 뉴스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동4구역 붕괴참사, 여수 국가 산단내 환경·안전사고, 광양제철소의 2년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등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인 문제들은 여전히였고, 삼학도 특급호텔문제, 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 등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반하는 개발과 사업자를 우선하는 행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광양제철소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환경사고, 영광 한빛 핵발전소 문제 등은 더욱 강한 안전기준 마련과 규제, 그리고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영산강이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으로 자연성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보성-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평두메 습지 특별보호 구역 지정 등은 희망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앞장서며, 안전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무게 있게 추진하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하고 당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학동4구역 붕괴참사,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부실 문제 드러나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재개발 사업에 얽힌 각종 계약 비리와 불법 도급으로 발생한 학동 참사는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철거노동자 건강과 철거 지역 주변을 오염시키는 석면철거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슬레이트 등이 현장에 방치되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학동참사대책위는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되는 여수 국가산단 내 환경, 안전사고 발생

올해도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10여건이 넘는 환경,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였다. GS 칼텍스의 화재사고, 금호티앤엘 작업자 컨베이어벨트 사고, LG화학 염소가스 누출 사고,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전 감전사고,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기름유출 하천 오염 사고, 이일산업 위험물 탱크 화재 폭발사고 등이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심각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지만, 기업들과 관계 기관의 해결책들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가 필요하다.

한해도 거르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사건·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보수·용접과정에서 용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부실 수행과 부적격 재료를 사용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수원

관계자 등 8명과 함께 시공업체와 한수원 법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익제보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수원은 은폐에 급급했으며, 시공업체와 한수원 관계자들은 용접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한빛 핵발전소 5호기는 작업자의 실수로 자동정지 된 적도 있었다.

이 밖에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문제와 최근에 발생한 규모4.9 지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추진 되었던 핵발전소 내진 계획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시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양제철소 2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위 등극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 총 19,095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나란히 1,2위 차지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포스코는 국내 최대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 원전2기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삼척)를 건설중이다.

삼학도 특급호텔 추진 및 사업자 선정 반발

지난 20년 동안 삼학도 복원과 공원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의 노력에 역행하는 특급호텔 건립 추진으로 지역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목포시는 특급호텔 추진의 사업계획과 선정절차, 평가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5월 목포시에서 삼학도 호텔 유치를 공식화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스카이원레저(주)를 선정하였다. 민간업체에서는 옛 삼학부두 20만5000㎡ 부지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등을 포함한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1지구, 특혜 논란속 사업자 수익보장을 우선하는 광주시

광주 민간공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 수익을 우선한 계획변경이 올해도 이루어졌다. 중앙공원 1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의 특혜논란과 사업자 수익 보장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진행되었다. 당초 제안서에 제시된 비공원시설의 면적, 밀도, 세대수의 증가는 2020년 실시계획인가에 이어 올해도 고분양가 관리지역, 토지 매입비 상승 등을 이유로 비공원시설과 용적률 등을 높아졌다. 결국 비공원시설 면적확대((7.85%)→8.03%), 용적률(164.93→214.07%)과 세대수 (2,104→ 2,779세대)의 증가되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다시 가동중단,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 필요

가연성쓰레기를 연료화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나주SRF 발전소는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문제, 소각의 유해성 주장 등 여러 논란이 겹치면서 2018년 2월 가동이 중단됐다. 올해 5월, 수년 만에 가동에 들어갔으나 주민반대와 연료 품질검사 부적합 및 연료조달 차질 등으로 3개월만에 다시 가동 중단되었다. 매립장 조기 포화, 직매립 금지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처리시설 대책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산강 죽산보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를 상시개방하는 보 처리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되고 수질 및 환경이 악화되는 후유증을 겪다가 10여년 만에 최종 복원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물이용 대책을 포함한 보 처리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수행중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보처리 이행과 함께 하구 생태기능 회복, 수질개선 사업들도 요구되고 있다.

보성-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전남 서해안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서천, 고창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됐다. 한국의 15번째 세계유산의 등재이며 우리나라 자연유산으로서도 제주화산섬 및 용암동굴 이후로 두 번째 등재이다. 신안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약 1000km²의 면적이며 보성-순천갯벌은 넓게 발달한 염습지와 뛰어난 염생식물 군락지이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인 흑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이며, 노랑부리저어새 등 25종의 국제 희귀조류와 220여종의 조류가 찾는 이곳은 생물학적 가치가 큰 갯벌로 평가되고 있다.

평두메 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광주습지조례 제정

무등산 평두메 습지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지난해 말 장록습지 국가하천습지 지정에 이어, 광주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등으로 습지 보전과 관리 체계화가 기대되고 있다.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평두메 습지는 경작이 중단된 이후 자연적으로 습지 원형이 회복되고 있으며, 무등산국립공원은 진흙 차수벽 설치, 생태 저류지 조성, 배수로 주변 토사 제거 등 복원 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 11월 제정된 ‘광주시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광주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함으로써 습지의 관리 및 보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명서] 앞에서는 의견수렴, 뒤에서는 심의 진행.

산업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을 중단하라!

산업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재검토위원회를 앞세워 졸속으로 처리하더니, 형식과 절차의 기본도 갖추지 않고, 오는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에서 고준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7일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안을 행정예고한 산업부는 그 의견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하고선, 의견 제출기한 당일인 21일 전문가위원회(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이용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에 산업부가 반대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조 베크렐에 이르고, 필수냉각수조에서 10년을 보관하더라도 기준농도의 3,750,000 베크렐에 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앞으로 수만년을 저장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집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치우지 않은 것과 같다.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냄새와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지자체는 꿈적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말도 없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농도 방사성폐기물이 쌓여만 가는데, 처리 방안은 딱히 없고 논의조차 없다.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량이라도 줄여야 할터인데, 대책없이 계속 늘어만 간다. 그런데 노후화된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자고 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자고 주장한다.

꿈수와 졸속으로 운영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조차 임시저장시설을 결론 짓지 못한 것은 ‘임시저장시설’의 법적인 정의와 관련 건설 절차가 매우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법적인 정의와 관련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이유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매우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의 의견 청취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용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중간/영구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기약도 없이,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의 핵발전소를 고준위핵폐기장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엄청난 저항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산업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확정 계획을 철회하라! 더불어, 국민을 우롱한 책임자를 징계하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졸속, 엉터리, 조작 공론화로 얼룩진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기반한 산업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해서는 안된다!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핵발전소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까지 그 멍에를 덮어 씌우려는 산업부는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1. 12. 24

한빛 핵발전소 호남권공동행동

[성명서]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가 온당한가?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 구상을 철회하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사실상 무등산 케이블카 추진을 염두에 둔 속내를 드러냈다.

29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민선7기 향후 시정방향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도시경쟁력 제고와 여가 관광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꾸린 ‘그린·스마트·펀(FUN)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총선때 당시 민생당 박주선 후보가 무등산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제시하더니, 내년 지

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의지가 있는 이용섭 시장이 또 무등산 케이블카를 들고 나선 모양새다.

관광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나 노약자, 장애인 등 약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내세워 무등산 케이블카 주장을 특히 정치권이 해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무등산 보전과 관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겨레 기사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에 원효사~장블재 구간 6.4km 구간에 친환경 버스 운행을 계획했으나 시민단체와 지역여론이 동의하지 않았고, 시민총회에서 유사한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응답 시민 대다수가 전기버스 운행을 반대하여 부결된 예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렇듯 일반 시민 정서와도 벗어나 있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국립공원 원칙에도 동떨어진 주장을 단체장, 정치권이 주도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 정상부 까지 접근하기 위한 케이블카나 전기버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약자 배려나 관광 효과 타당성으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국립공원의 제1원칙은 보전과 관리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 친환경 등으로 포장한 개발이나 활용으로부터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자는 취지인 셈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 광주전남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여개가 넘는 국립공원중에서도 탐방객수가 매해 상위 3위내를 웃돈다. 이 만으로도 지역 관광효과가 적지 않다. 무등산을 직간접적으로 접근 활용은 범위를 넓혀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정상부 까지 탐방객이 접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정상부 군부대와 방송 송신탑 이전과 복원, 탐방객 집중지역 분산 대책 등 국립공원 무등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섭 시장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조급한 마음을 이번 무등산 케이블카 구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큰 오판이다. 광주시장이 무등산 케이블카를 주장한다고 해서 국립공원 계획에 쉽게 반영될 리도 없고 무등산이 제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용섭 시장은 무등산 복원과 보전, 2045 탄소중립 등 중차대한 과제를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남은 민선7기 과제이자 향후 방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등산 케이블카를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철회하길 바란다.

2021. 12. 29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 관

전 문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89년 3월17일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 광주환경공해연구회를 시작으로 1992년 2월 29일에 명칭을 변경하여 창립된 광주환경운동 시민연합,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93년 4월 29일에 전국조직으로 재창립했던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을 계승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Gwangju”, 약칭 Gwangju KFEM 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전남,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및 국내외 연대 사업
3.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정책 제안 사업
5. 목적이 유사한 기관·단체·법인과 공동 사업
6.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 ①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본 연합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②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회원은 본 연합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자격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상벌)

- ①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상임이사 1인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궐위된 전임자의 임기가 3분의 2를 지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임원은 법인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간의 분쟁이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상임이사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사무처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합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동의의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 소집시 이사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 전 까지 운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운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임을 통보한 운영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 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운영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과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 작성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집행위원 선임 및 해임
10. 기타 본 연합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조직

제26조(자문회의)

①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고문)

① 본 연합은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8조(집행위원회) 본 연합의 목적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회원모임)

- ① 본 연합은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② 회원모임 설립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사무처)

- ① 본 연합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총괄한다.
-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 연합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예.결산)

- ① 본 연합의 수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 연합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9조(정치활동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 본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기부금 결산보고) 본 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2017년 1월 17일 10차 개정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전환에 따른 전면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http://gj.ekfem.or.kr> kwangju@kfem.or.kr
T. 062-514-2470 F.062-525-4294